

한글 필사 고문헌에 나타난 어휘 고찰* **

—『필사본 고어대사전』의 어휘를 중심으로—

박재연(선문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맺음말 |
| 2. 한글 필사 고문헌 속 어휘 양상 | |

1. 머리말

기존의 고어사전인 『교학 고어사전』, 『우리말 큰사전4(옛말과 이두)』, 『이조어사전』 3종의 인용 문헌 수를 살펴보면, 『교학 고어사전』이 326종, 『우리말 큰사전4(옛말과 이두)』는 207종, 『이조어사전』은 159종이며 인용된 문헌의 대부분이 15~17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 고어사전의 출판 시기는 『이조어사전』이 1964년, 『우리말 큰사전4(옛말과 이두)』가 1992년, 『교학 고어사전(개정·증보)』은 1997년에 간행되었고, 시기별 사전으로 『17세기 국어사전』이 1995년에 나왔다. 2001년에는 낙선재본 소설을 중심으로 편찬한 『고어사전』이 나왔고, 이 사전을 확대 개편한 것이 『필사본 고어대사전』¹⁾이다. 이 사전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413-A00004)

**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1일 제52차 한국언어문화회 정기학술발표대회(한국 언어문학 새 자료의 발굴과 공유)에서 “한글필사문헌의 활용과 고어대사전 편찬”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한 것이다.

은 한글 필사 고문헌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7~20세기 중반까지의 자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근대국어 사전의 성격이 짙다.

『필사본 고어대사전』은 200여 종 2000여 책, 한글간찰·한글고문서 1000여 점의 문헌 자료에서 어휘를 채록한 사전이다. 특히 기존의 고어사전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필사본 고소설류, 한글 고문서류, 중국어회화서류 등 차별화된 문헌들이 기반이 이룬다. 또한, 문헌 자료의 특성상 부족하였던 근대국어의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발굴 정리된 한글 필사 문헌들에서 나타난 어휘들이 『필사본 고어대사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의 고어사전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어휘, 표제어의 뜻풀이가 불분명하였던 어휘, 사용 시기의 하한선이 가늠되는 어휘, 시기별로 다양한 의미 변화가 확인되는 어휘 등으로 세분하여 논하고자 한다.²⁾

2. 한글 필사 고문헌 속 어휘 양상

모든 언어 연구의 기본은 어휘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통시적으로 그 변화 양상이 무쌍한 한국어의 경우에는 시대를 아우르는 연구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기존의 고어사전들은 해당 사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적인 불충분함과 시간적인 단절로 인해 사전에 수록된 개개 어휘들이 변화해 온 모습을 온전히 관찰하기가 어려웠다. 한글 필사 고문헌의 활용을 통한 사전 편찬은 그 어휘를 양적·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실제로 아래와

-
- 1) 한국연구재단지원 중점연구소지원사업 ‘한중 어문학 자료 활용을 통한 사전편찬 연구’의 중간 결과로 2단계에 출간한 『필사본 고어대사전』(전7책)은 표제어 수가 7만여 개, 예문이 18만여 개, 5,700여 쪽(글자 크기 8 point, 4×6배판)이다.
 - 2) 향후 2015년에 간행할 계획인 『고어대사전』은 기존의 필사자료는 물론 간본(목판본, 활자본) 자료를 모두 망라한 것으로써, 표제어 수 15만여 개, 예문 57만여 개를 수록한 10,000여 쪽(글자 크기 8 point, 4×6배판) 정도의 사전이 될 것이다.

같은 어휘들이 이들 필사 문헌에서 발굴되고 있다.

2.1. 희귀어

『고어대사전』에서는 기존 ‘고어사전’들에서는 상당히 빈약했던 근대국어 어휘와 용례들을 폭넓게 수록하게 될 것이다. 다른 시대에 비해 필사본 자료가 훨씬 더 풍부했던 근대국어 시기 자료들 중에는 한문의 원문을 언해한 번역소설들도 상당하다. 이러한 번역소설은 때로 그 분량이 방대하고 글씨체를 알아보기도 어려워 연구 자료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번역소설은 당시 구어체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로, 이들 자료에 나타난 어휘와 용례들에서는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손실분”이라는 뜻의 ‘질오리/질울’이라는 단어는 각각 번역고소설 『슈스유문』(18c중엽)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 ‘질오리/질울’의 대역어 ‘折耗’는 『後漢書』·『東堂老』·『聖武記』 등에 그 용례가 보인다.⁴⁾

【질오리】 ㉠ 손실분. ㉡ 折耗 ㉢ 주인 왈 여기 또 질오리를 덜라 숙비 굴오디 쇠 우히 근은 헤디 말려니와 므슴 질울이 이시리오 (叔寶道: “銅上金子也不算, 有甚麼折耗?”) 主人道: “這不過是金子的光兒, 那裏作得帳?”) <隋史遺文 2:21> ⇒ 질울

【질울】 ㉠ 손실분. ㉡ 折耗 ㉢ 숙비 굴오디 쇠 우히 근은 헤디 말려니와 므슴 질울이 이시리오 (叔寶道: “銅上金子也不算, 有甚麼折耗?”) 主人道: “這不過是金子的光兒, 那裏作得帳?”) <隋史遺文 2:21> ⇒ 질오리

3) 박재연·김영·손지봉(2004), 『슈스유문隋史遺文』, 이회, 39쪽.

박재연(2010), 『필사본 고어대사전』 편찬에 대하여 - 번역고소설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16, 한국사전학회, 175쪽.

4) “前後所遣將帥, 宦官輒陷以折耗軍資, 往往抵罪。”(後漢書 馮緄傳) “叔叔, 我買將那倉小米兒來, 又不敢春, 恐怕折耗了。”(東堂老 3) “又贖苗質民田萬餘畝, 曰官贖田, 以補助折耗。”(魏源 聖武記 7)

‘어리쇠/어르쇠’라는 단어는 각각 변역고소설 『녹목단』(19c초)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 이에 대응하는 근대중국어 “悶子火 /火悶子”는 중국의 기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⁶⁾

【어르-쇠】 罔 ((기물)) 성냥. 부싯돌. 불씨. 悶子火 || 문 안에 드러서서 회중으로 어르쇠를 너여 둘러보니 다항히 문 안 디관 우에 잇고 낭편은 겹벽이니 다른 죄슈는 다 겹벽 안에 잇고 임정천 혼 스람만 홀노 디관 상에 거히되 (進得門來, 懷中取出悶子火一照, 幸喜就在門裏邊地板上睡着. 兩邊盡是暖間, 其餘的罪囚盡在暖間之裏, 獨任正千一人睡居于此.) <綠牡 2:129> ⇒ 어리쇠

【어리-쇠】 罔 ((기물)) 성냥. 부싯돌. 불씨. 火悶子 || 다시 어리쇠를 비러 간부와 음부를 보라 하니 화뢰 회중으로서 어리쇠를 너여 비취 이거늘 임정천 왈 그릇되얏도다 간부 음부의 머리 아니로다 (再借火悶一照, 看看這奸夫淫婦. 花老懷中取出了火悶一照, 任正千道聲: “錯了! 這不是奸夫淫婦之首.”) <綠牡 2:136> 느진 후 스안이 밤옷을 벗고아 입고 응용흐는 물건을 가져 회중에 갈무리 어리쇠와 단혼향 등 물건이오 두 즈로 니도는 다리에 쫓고 (臨晚, 鮑自安將夜行衣服換上, 應用之物俱揣入懷中, 亦不過火悶子并鷄鳴奪魂香, 解藥等類, 兩口順刀插入腿中.) <綠牡 3:174> 스안이 노끈 밧상즈 안에 안져 니려가 어리쇠로 빗초여 보니 덩북 벽 가에 일기 목통이 노옛거날 스싱아 담은 것임을 헤아리고 들고 노상즈에 이르러 노를 흔드니 집 우헤 스름이 연망히 당기여 올니거날 (鮑賜安坐在繩兜之中, 着人繫下, 將火悶一照, 見東北牆角倚靠一個竹桶, 料必是私娃子; 用手拿過, 走至繩兜邊, 仍坐其中, 將繩一扯, 上邊人即知事已做妥, 連忙几提提將上來.) <綠牡 3:182> ⇒ 어르쇠

그런데 이 ‘어리쇠 /어르쇠’가 바로 성냥임을 알 수 있는 용례가 있다. 같은 문헌에 ‘火悶子’를 ‘성냥’이라 번역한 것이다.⁷⁾

【성냥】 罔 ((기물)) 성냥. 석류황(石硫黃). 마찰에 의하여 불을 일으키는

5) 박재연(1998), 『녹목단綠牧丹』, 중한번역문헌연구소, 73, 74, 12, 134쪽.

6) 위의 논문, 175쪽.

7) 위의 논문, 175쪽.

물건. 작은 나뭇개비의 한쪽 끝에 황 따위의 연소성 물질을 입혀 만들다. 火悶子 || 계교를 덩허미 성냥을 니여 향에 당길시 불이 크면 스펀이 말가 저허허며 불 당긴 향으로 다른 향에 당기여 입으로 나 즉나즉 부니 (算計已定, 取出火悶子來, 暗暗點着香頭又恐火悶子火大被人看見, 想又收起, 用那點着之香暗來, 那末着者用口底上吹去.) <綠牡 3:185> ㄹ 어르쇠, 어리쇠

또 다른 희귀어의 예로는 ‘문’을 들 수 있다. ‘문’은 조선후기 한어회화서인 阿川文庫 『中華正音』(20c초),⁸⁾ 濯足文庫 『騎着一匹』(20c초),⁹⁾ 『學清』(20c초)에서¹⁰⁾ “번”의 의미로 쓰였다.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 ‘지난번’을 ‘웃문’으로, ‘다음번’을 ‘아르문’ 또는 ‘아룻문’으로 표기한 것이다.

【문】 ㄹ의 번(番). 일의 차례를 나타내는 말. 塘 || 니 너를 한 장 단즈를 썬 쥬마 이디암 문 네의 은즈를 갑푸미 올으야 아니 오른야 (我給你寫一個回單子, 趕下塘還你銀子, 是得是不得?) <學清 7a> ㄹ [車+尙] || 말을 들으니 일년에 일천 오백 썬은 덩한 뉴레라난디 썬덜 한 문이여던 또 적게 오미 이슬야 (聽說一年一千五百包是一定的留例, 一[車+尙]否咧也有小來的麼?) <中華 阿川 13a> ㄹ季子 || 방에 일 볼 사람이 업기로 밍양 한 문에 한나 차근 동무를 보니노라 (舖子裡沒有人管照, 每一季子打派一個小夥計去咧.) <中華 阿川 13b> 다시 한두 문을 기다려서 만일 제가 오디 안오면 니 너를 조고만 주의를 지여줄 거시니 가이은 근본 억지로 제게 팔앗더니 제가 네게 간구하야 가져가기시나 (再等一兩季子, 若是他的不來咧, 我給你作一點主意來, 狗是底根悖道賣給他的麼, 他一個懇求你拿去的麼?) <中華 阿川 9b>

【웃-문】 ㄹ 지난번, 지나간 차례나 때. ㄹ [車+尙] || 웃문에 니 부탁한 물건을 가져왔너나 (上[車+尙]我托的東西拿來咧麼?) <中華 阿川 1a> 웃문에 제가 네 말을 니르고 셔른 아들 다- 자리 신냥가이를 가져가며 말하기를 이 문에 네가 와 문다 하더라 (上[車+尙]他的提

8) 朴在淵·竹越孝 編編(2010) 『中華正音(阿川文庫)』, 중한번역문헌연구소, 1-104쪽.
|| 박재연(2009), 『조선후기 필사본 漢語會話書 阿川文庫 『中華正音』에 대하여』, 『중국어문학지』 31, 중국어문학회.

9) 朴在淵 編譯(2010), 『騎着一匹(濯足文庫)』, 중한번역문헌연구소, 1-59쪽.

10) 朴在淵·周發祥(2002), 『你呢貴姓·學清』, 중한번역문헌연구소, 1-212쪽.

你的話, 三十八吊錢的戲狗拿去說是, 這次你來開付啊.) <中華 阿川 8b>
 수여던 옷 문보담 좀 적으니라 (數兒否咧, 比上[車+尙]小一點子.)
 <中華 阿川 33b> ▼上塘 || 옷문의 스간 것 줍물건은 도무지 심양으
 로 실던 것시 상기 거긔셔 덤엇난디 (上塘販去的雜貨是, 都發得瀋
 陽, 咳在那裡堆着.) <騎着匹 上8b> 저의가 남의게 갑플 여수 은이
 가장 천여 량은 되는데 옷문의 사간 잠물건은 다 심양으로 실녀셔
 도로 거긔 덤여두고 (他們貴人家的票銀子, 好千數兒來的銀子, 上塘販
 去的雜貨是, 都發得瀋陽, 還在那裡堆着.) <中華 濯足 16口> ≡ 아
 르문, 아룻문

【아르-문】 ㉞ 다음번, ㉞ 下[車+尙] || 왕형아 네 그 감투 은은 아르문에 밋
 쳐 니가 올디 안이 올디 덩티 못하가시니 만일 오디 안을 써여
 동부동 동무는 올 터이니 (王大哥, 你那個帽銀子是, 趕下[車+尙]
 却不定我來不來, 若不來的時候乙, 小不得夥計來.) <中華 阿川 4b>
 ⇒ 아룻문, 아룻번, 아룻번 ⇔ 옷문

【아룻-문】 ㉞ ① 다음번, ㉞ 下次 || 그러면 아룻문에 담비를 반하여 오면 반
 드시 니를 보갓다 (那麼趕下次販烟草來的必見光啊!) <中華 阿川
 3b> 네 억지로 하여셔은 아룻문의 뉘 즐게 널과 맛잡갓너니 우
 리드류 하던지 마던지 (你要罷道作咧, 趕下次誰肯惹你嗎, 咱們長作
 不作罷.) <你呢貴姓 19b> 엇전 말인고 하니 다못 아룻문의 나을
 물니칠가 하여 인역이 노실한 처하야 더욱 노형을 속이가지시니
 말이 이스되 입의로 하여 니지 못하갓다 (怎嗎說呢? 只怕下次躲
 着我, 各人粧老實些罷, 越發欺付老哥; . 有話說不出口來!) <騎着匹
 下36a> ▼下[車+尙] || 네 나를 열 짝 감투를 맞티면 아룻문에 네
 인을 갓년 거시 올으니 안이 올으니 (你的賒我十包帽子咧, 趕下
 [車+尙]還你銀子是得是不得?) <中華 阿川 2a> 이 묘리를 네 사로
 아디 못한다 비겨 말하랑이면 이번에 멧 짝이 들 오면 아룻 문
 에 멧 짝을 더 가져오나니 (這個妙理你咳不懂得. 比方說是, 這次
 小來幾包, 下[車+尙]多帶幾包來呢.) <中華 阿川 13a> ② 다음철, ㉞
 下季子 || 니 도라가셔는 다른 곳으로 물건 반하러 가: 시니 아
 룻문에 밋출디 못 밋출디 덩티 못하갓다 (我的趕回去咧, 你別處
 販貨去, 趕下季子未定赶上趕不上.) <中華 阿川 4b> ⇒ 아르문 ≡
 아룻번, 아룻번 ⇔ 옷문

‘문’이 한어회화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번’의 서북방언
 이 아닐까 추측되나, 실제로 서북방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

진 六堂文庫 『騎着匹』(20c초)에서는 ‘아룻번’ 또는 ‘아룻번’으로 나타나며 ‘문’은 쓰이지 않았다.¹¹⁾

【아룻-번】 ㉟ 다음 번. ㉟ 下次 || 이런 후의 니가 무어슬 속이지 아니 못하리라 네짚은 나를 속이지 못하고 니짚은 너의을 무슴 심도 허비치 안커 속이리라 이것슨 노실한 말리로다 아룻번의 너의을 달니 속이리라 (你却是措[坑]不着我, 我却是措[坑]着你們不費甚嗎力, 這個老案的話, 趕下次欺哄你們別的咧。) <騎着匹 下40a> 일노부터 썬 후의 우리 저의을 덜 맛잡자 노적아 너 헛 시엌하였다 아룻번의 너을 도라보고 스람이 업스면 올타 우리 아직 괴롱잇말 멧 초고 노적을 더하여 반일이나 말하여도 중시 노여장만 말하지 못한다 고만두고 고만두어라 (起這以後, 咱們小惹他罷, 老賊你呢白說, 趕下次沒有人照顧你就是咧, 咱們先止住頑笑話罷, 對着老賊說个一半天的話, 終是說不過老業章, 拉倒拉倒罷。) <騎着匹 下41a> ⇒ 아룻번 ⇔ 아르문, 아룻문 ⇔ 웃문

【아룻-번】 ㉟ 다음 번. ㉟ 下次 || 괴라도 이 접이 괴닷 니약치 안타 여들 돈 멧 님을 잇것 얼마 의사기여 이 적은 의스을 위하여 너의을 낫출 주지 아니면 아룻번의 나를 좇타 하라 (恒豎這店不大狠利咧, 八百幾十錢多大意思, 爲這個小意思, 你們不給臉下次不離我啊。) <騎着匹 下57b> ⇒ 아룻번 ⇔ 아르문, 아룻문 ⇔ 웃문

다음 예문은 ‘봄문’, ‘춘문’의 형태로 쓰였는데, 모두 ‘春季子’의 대역어로 쓰였다. ‘次’가 일의 횟수를 나타낸다면, ‘塘/[車+尙]’은 갔다 돌아오는 왕복의 횟수를 나타낸다. 반면 ‘季子’는 한해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시기로 나눈 가운데 한 시기로, ‘철’ 또는 ‘계절’에 가깝다.

【봄-문】 ㉟ 봄철. ㉟ 春季子 || 먼저번 봄문에 니 오습여 량 은을 바다두더니 어디 둔디 아디 못하가시니 너과 갱가락하미 업더냐 (昨个春季子受下我的五十多兩銀子, 却不知攔得那裡呢, 勾你言語些咧沒有啊?) <中華 阿川 4a> ⇔ 춘문

【춘-문】 ㉟ 봄철. ㉟ 春季子 || 니년 춘문에 다시 와 노자 (過年春季子再來打惱

11) 박재연·김영(2011), 『騎着匹(六堂文庫)·中華正音(華峰文庫)』, 學古房, 108, 109, 123쪽.

罷.) <中華 阿川 20a> ⇨ 본문

현대국어에서 ‘한탕’은 ‘한바탕’이라는 뜻으로, ‘한 번의 일거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원래는 ‘무엇을 실어 나를 때 한번 나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런데 ‘한탕’은 대응되는 근대 중국어 ‘一[車+尙] yitāng’에서 보듯 우리말 ‘탕’은 중국음 ‘tāng’과 발음이 같아서 중국어 양사에서 온 차용어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車+尙]’과 ‘塘’은 통용자인데 ‘[車+尙]’, ‘塘’ 모두 『集韻』에 ‘徒郎切’로 나와 있어 우리 한자음은 ‘당’이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위 두 글자는 중국어 양사(量詞, 단위명사)로는 더 이상 쓰이지 않으며 현재는 모두 ‘趟 tàng’ 자로 통일되어 쓰인다. 참고로 ‘趟’자는 『廣韻』에는 ‘豬孟切[쟁zhēng]’, 『集韻』에는 ‘除庚切[정chéng]’로 나와 있으며, ‘tàng’이라는 중국음은 근대에 이르러 양사로 쓰일 때의 발음이다.

【탕】² [圖의] 당([車+尙]). 왕복 한 차례. 무엇을 실어 나르거나 일정한 곳까지 다녀오는 횟수를 세는 단위. (중국어 직접 차용어).¹¹ [車+尙] || 잇꾸나 황노디야 네 한 탕을 신고하였구나 어니 씨여 성에 낮기 달기 올라야 니르러 왓너냐 (噯呀, 黃老大, 你的辛苦一[車+尙]咧. 幾時出城的鷄叫纔到來咧?) <中華 阿川 26a> ⇨ 문, 번

그런가 하면 『朴通事新釋諺解』(1765)에서 ‘운’은 ‘뭍’의 뜻으로 쓰였으나, 서울대본 『통의슈호던』(18c말)이나¹²⁾ 영남대본 『통의슈호던』(18c말),¹³⁾ 이화여대 소장 『슈허지』(20c초),¹⁴⁾ 『수호지어록해』(20c초)에서는 ‘떼, 무리’의 뜻으로 쓰였음이 확인된다. 특이하게도 이 어휘는 아래에서 보듯 ‘수호지’ 번역본에서만 나타난다.

12) 유춘동·박재연(2007), 『통의슈호던忠義水滸傳(서울대본)』, 중한번역문헌연구소, 48, 68쪽.

13) 유춘동·박재연(2008), 『통의슈호던忠義水滸傳(영남대본)』, 중한번역문헌연구소, 7, 24쪽.

14) 이윤석·박재연·유춘동(2007), 『슈허지水滸誌』, 학고방, 64쪽.

【운】 1 罇 ㉠ 罇 停 ॥ 秋收할 때에 다드라 제 시른 벼와 슈슈와 기장과 보리와 밀과 모밀과 콩과 팥과 菘豆와 광장이 거른 콩 찰깨와 들깨 여러 가지 곡식을 씨를 더른 밧씨 세 운에서 맛당이 主人을 두 운을 논화 주어야 울켜늘 데 다만 혼 운을다가 主人을 주고 그 남아 풀 것 풀고 (到了秋收的時候, 他種의 稻子, 膏粱, 黍子, 大麥, 小麥, 蕎麥, 黃豆, 小豆, 菘豆, 豌豆, 黑豆, 芝麻, 蘇子, 諸般糧食, 除了種子之外, 三停裡該分與主人二停纔是, 他只交一停與主人, 其餘賣的賣了.) 〈朴新 3:38b〉

2 떼. 무리. 罇 混 云 (一夥) 〈水滸 愚山 2b〉 ▼ 夥 ॥ 도적에 운의 드다 (落草) 〈語覽 水滸 24a〉 도적의 운의 드다 (落草) 〈水滸 2:10〉 운에 드다 (落草) 〈水滸 延世 41b〉 낭산박 이 운을 도적이 여러 번 잡으려 헛디 잡디 못흐거든 우리 혼 고을 힘을 엇디헛리잇가 (梁山泊這一夥, 朝廷幾次尚且收捕他不得, 何況我這裏孤城小處?) 〈忠義水滸 서술대 22:17b〉 송강의 운이 다 인의를 전주하야 가난혼 사람을 구제하야 늙은 사람을 업슈이 너키니 만일 더를 어더 오면 여기 빅성이 탐남혼 관원의게 보채이디 아니홀다 사라나리로다 (宋江這夥端的仁義, 只是救貧濟老, 那裏似我這裏草賊, 若待他來這裏, 百姓都快活, 不喫這夥濫污官吏蒿惱.) 〈忠義水滸 서술대 22:40b〉 셔귀 폐현 짜 망당산의 새 도적 혼 운이 인마를 모화 이시니 웃듬 선싱의 성은 번이오 일흠은 세오 별호는 혼세마왕이라 호고 (徐州、沛縣芒碭山中, 新有一夥強人, 聚集着三千人馬, 爲頭一個先生, 姓樊, 名瑞, 綽號混世魔王.) 〈忠義水滸 영남대 21:8a-59〉 요스이 송강의 강도 운이 게셔 도적질 헛디 구의셔도 잡디 못흐느니 (近年泊內是宋江一夥強人在那裏打家劫舍, 官兵捕盜近他不得.) 〈忠義水滸 영남대 21:29a-61〉 낭산박 도적의 운이 다 관겨티 아니흐니 내 혼자 가도 저히를 잡아올 거시니 (梁山泊那夥的男女打甚麼緊, 我觀他如同草芥, 兀自要去特地捉他.) 〈忠義水滸 영남대 21:29a-61〉 낭임다려 보의 띤 은 널 냥을 니여 석슈를 주어 미천 흐라 흐니 석슈 여러 번 스양 흐다가 밧고 피츠 마음의 말하며 운의 들 널을 의논흐더니 (叫楊林身邊包袱內取一錠十兩銀子送與石秀做本錢, 石秀不敢受, 再三謙讓, 方纔收了, …說些心腹之話, 投托入夥.) 〈水滸 이대 40:2a〉

‘미물 혼-/미물 혼-/미물 혼-’는 번역고소설 이대 소장본 『슈허지』¹⁵⁾ 낙선재본 『삼국지통속연의』(18c중엽),¹⁶⁾ 『형세언』(18c중엽)에서¹⁷⁾ 각각 ‘貌拙 /猥瑣’

15) 위의 책, 111쪽.

16) 박재연(1998), 『삼국지통속연의三國志通俗演義2』, 학고방, 503쪽.

의 대역어로 쓰였다. 『님화당연괴봉』(19c초)과¹⁸⁾ 『옥기린』(18c중엽),¹⁹⁾ 『엄씨 효문충의록』, 『삼강명행록』에 “못생기다, 오종종하다, 형편없다”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인데 다음과 같은 용례에서 그 의미와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미물-혀-】²⁾ ㉞ 못생기다. 오종종하다. 형편없다. 貌拙 || 송강은 형체 검고 저저 풍신이 미물허디 원의는 신치 비범하니 귀인의 상피 이 시니 (宋江身材黑矮, 貌拙才疎; 貝外堂堂一表, 凜凜一軀, 有貴人之相) <水滸 이대 56:22b> 형이 스스로 용널혀여 장부의 체를 일호미어늘 엇지 우리 저저를 나모라며 스스로 풍치 미물혀여 회첩이 쓰소리 업슨 줄 모르고 도로혀 이런 점주흔 말을 들추느뇨 <엄호 9:57> 연이나 님당의 거동이 미물허 지 아니라 안치 호방허니 처첩이 만홀 기상이오 녀식을 디니볼 지 아니라 <님화 16:28> ⇒ 미물혀-, 미물혀-

【미물-혀-】³⁾ ㉞ 못생기다. 오종종하다. 형편없다. 棼 || 크 적고 몸이 ㄱ늘고 눈망울이 둥글고 양지 붉고 뺨이 브라디고 턱이 싸고 얼굴이 절너 풍치 미물허디 정신이 돌을허고 영매 짝이 업더라 <삼명 4:39> ⇒ 미물혀-, 미물혀-

【미물-혀-】⁴⁾ ㉞ 못생기다. 오종종하다. 형편없다. 猥 || 죄 문제 당송의 인물을 보니 풍치 ㄱ장 미물허디라 오분이나 깃거 아니허더니 (操先見張松人物猥瑣, 五分不喜.) <三國 19:79> 나로시 노르코 몸이 적으며 소리 ㄱ늘고 풍치 미물허더니 (他生得禿頭、黃鬚、聲啞、身小、做人極好.) <型世 4:51> 다만 덩가의 집이 가난허야 주식도 장만허 거시 업스니 ㄱ장 미물허디라 (但只是鄭家也只是箇窮人家, 將餅卷肉, 也不會賠得.) <型世 3:28> 더의 나히 만코 얼굴이 미물허며 또 술을 즐겨 상시 ㄱ양 취코 단니를 보고 (只是年紀大了婦人十多歲, 三十餘了, “酒”字緊了些, “酒”字下便懈了些.) <型世 4:52> 우형 등은 지죄 소로허고 풍치 미물허니 규동옥화는 브라디 못허나 장디뉴화는 쓰르리 업더니 샤테의 복은 측냥터 못허리로다 <옥기린 4:24> 당부의

17) 박재연(1995), 『형세언型世言』, 학고방, 46, 85쪽.

18) 중한번역문헌연구소(2004), 『님화당연괴봉林花鄭延奇逢』 6, 학고방, 274쪽.

19) 박재연·양승민(2004), 『옥기린玉麒麟』, 다운샘, 181쪽.

20) 박재연(2010), 「『필사본 고어대사전』 편찬에 대하여 - 번역고소설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16, 한국사전학회, 177-178쪽.

풍치 미물홀 배 아니로디 석스를 생각하니 참괴하야 이녀를
멀리 거절했더니 다시 생각하니 너모 미물홀디라 <뉴삼 박
순호 1:21> ⇒ 미물홀-, 미물홀-

‘배받- /배싸- /배빠-’는 ‘打破’의 대역어로 “훼방놓다, 깨다”의 의미로 사
용된 단어인데 연세대 소장 번역고소설 『옥지귀』(18c중엽)와²¹⁾ 『서유기』(18c
초),²²⁾ 낙선재본 『형세언』²³⁾ 등과 고소설 『옥호빙심』(19c초)에 나오는 용례
에서 그 의미와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배-받-】 ㉞ 망치다. 방해하다. 훼방놓다. ㉞ 打破 || 더의 흑관을 앓고져 홀딘
대 문져 이 혼인을 배받 후의야 가히 일을 일우리니 므슴 계교로
회지으리오 (他處館既爲選婚, 若要奪他之館, 除非先打破他的婚姻.)
<玉支 1:44> 내 이 촌등의 가음열기 웃듬이오 또흔 어룬 사름이
어늘 이제 요가의 형데 날을 업슈이 너겨 슈육홀물 이러트시
하고 또 나의 친스를 배받니 엇디홀여야 이 분을 플리오 (我在這裏,
是村中皇帝, 連被他兩番凌辱, 也做人不成, 定要狠擺布他纔好!) <型世
3:49> ⇒ 배싸-, 배빠-

【배-싸-】 ㉞ 망치다. 방해하다. 훼방놓다. ㉞ 이거시 뇌음신 거슬 못뜰 호손
이 날을 소겨 발원을 배싸려 홀닷다 (潑淋漓! 害殺我也! 現是雷音
寺, 還哄我哩!) <西遊 延世 9:76> ⇒ 배받-, 배빠-

【배-빠-】 ㉞ 망치다. 방해하다. 훼방놓다. ㉞ 이 비록 도로의 기롱과 친척의
우슴이라도 도라보다 못홀 배 잇고 또흔 헤디 못홀려니와 일이
진실노 가히 아디 못홀 배 이시니 이제 공지 므음을 슈골니 홀고
뜻을 늦초와 못뜰 방의를 배빠고 더의게 구홀며 블의 또흔 혀를
달히고 입을 홀여버려 힘싼지 방의를 다래여 방의 혼연히 허락
매 일이 만의 홀나토 의심되미 업솔디라 <옥호 1:56> ⇒ 배받-,
배싸-

이 어휘는 중세 국어의 ‘배-’와 관련이 있다.

21) 김장환·박재연(2003), 『옥지귀玉支璣』, 이회, 13쪽.

22) 김장환·박재연·김영(2009), 『서유기』, 학고방, 345쪽.

23) 박재연(1995), 『형세언型世言』, 학고방, 53쪽.

【배-】¹동 ❶ 뒤집다. 覆 || 두 버디 빅 배안마른 브르미 하늘 계우니 (兩朋舟覆, 風靡勝天.) <龍歌 9:43> 밤 벽장잇 것도 다 안희 드러 다락 의 즈므고 버로란 돌만 배여 빠져 어더 무티고 <柳時定謔簡36 요스 이 기운이나> ❷ 망치다. 없애다. 褫 || 陰을 헐며 魔를 배야 (破陰褫魔) <楞嚴 10:92> ▼喪 || 涅槃은 …배야 업슨 號 | 아니라 (涅槃…非喪亡之號也.) <法華 1:109> ▼亡 || 萬一·에 :히여·곰 나·라히 :배디아·니더·든 :엇테·큰 唐·의 :두미 드외·리오 (向使國不亡, 焉爲巨唐有.) <杜初 6:2b> 크면 지블 햐야 브리고 저그면 모몰 배리니 (大則破家, 小則亡己.) <內訓 初2 上15> ▼隕 || 어던 사르물 띄오디 원슈 ㄴ티 햐고 죄를 지슈디 음식 ㄴ티 햐야 저그면 모몰 배아 목수물 망멸햐고 크면 宗族을 업더리터 조상 니수물 굿게 햐느니 (疾良善如讐隕, 犯刑憲如飲食, 小則隕身滅性, 大則覆宗絕嗣.) <翻小 6:30b> ▼滅 || 耿弇 賈復·이 王室·을 扶持햐고 蕭何 曹參·이 :남·굽·듯·굴 拱向·햐·눅·다 威嚴·을 자·바셔 蜂蠆·를 :배오·힘·때 鷹鷂·을 본반·눅·다 (耿弇扶王室, 蕭曹拱御筵, 秉威滅蜂蠆, 戮力效鷹鷂.) <杜初 20:4b> 勇猛 햐 士卒·은 :되 배·요몰 스랑햐고 將帥·는 三台·사·벼·슬·호몰·브·라더·라 (猛士思滅胡, 將師望三台.) <杜初 21:36b> ·햐·몰·며 :되 :배 디 아·니·햐야·시·니 控帶·햐야·쇼미·아스·라·히 :머·도·다 (況乃胡未滅, 控帶莽悠悠.) <杜初 22:37b> ㅼ·데 犬戎·이 배·요몰 가·들워 :사·르·미 서근 조·홀·갈·마 ㄴ·드기 두·게 코져 햐·더니·라 (意待犬戎滅, 人藏紅腐盈.) <杜初 24:22a> 내 네 나라홀 배오리라 <月釋 7:46> 涅槃은 …배야 업슨 號 | 아니라 (涅槃…非喪亡之號也.) <法華 1:109> 나라히 배야 업고 <南明 下57> 그 종이 우연히 종인가 그웃 주그면 우리 이리 배는 차기니 요스이는 글로 더 분별햐뇌 <순천김 씨51 글사니> 엇디햐 時運이 일락 배락 햐얏노고 <송강·이 16, 성산 별곡> ◻ 배디-, 배아-, 석배-, 셋배-, 죽배-

【배아-】 동 없애다. 망치다. 탕진하다. 破 || 器물을 석고 히여던 거슬 가지며 날오디 내 아래브터 ㅼ며 먹던 거시라 내 몸과 입에 편안햐예 라 햐더라 그 후에 아스 햐미 동성의 즈식들히 즈조 세간을 배아 늘 므득 다시 주어 거느리치더라 (器物取其朽敗者曰:我素所服食, 身口所安也, 弟子數破其產, 輒復賑給.) <翻小 9:22b> 器물을 그 석고 히여던 거슬 가지며 ㄴ오디 내 본디 ㅼ며 먹던 배라 몸과 입에 편안히 너기는 배라 햐더니 아오와 동성의 즈식들히 즈조 그 세간을 배아거늘 므득 또 주어 쥬족게 햐더라 (器物取其朽敗者曰:我素所服食, 身口所安也, 弟子數破其產, 輒復賑給.) <小學 6:20a>

【석-배-】 ㉟ 썩고 망하다. 衰朽 || 對揚·호야 特別·히 通達·호믈 期望·호노
·니 늘·거 석·벤 게 다·시 옷곳·호·리로·다 (對揚期特達, 衰朽再
芳菲[言盧侍御 | 對揚於天子而特達於世, 則甫之衰老 | 亦有光矣
라.] <杜初 24:50>

【섯-배-】 ㉟ 섞여 망하다. 交喪 || 法이 減호려 홀 쟈 世와 道와 섯배며 邪
와 暴와 섯니러 (法欲減時, 世道交喪, 邪暴交作.) <法華 5:43>

【죽-배-】 ㉟ 죽어 망하다. 喪亡 || 魯·와 衛·와 더·욱 尊重·호시·니 徐·와
陳·과 :저기 죽·배도·다 (魯衛彌尊重, 徐陳略喪亡.) <杜初 8:14a>

위에서 보듯 중세 국어의 ‘배-’는 ‘뒤집다’, ‘망치다’, ‘없애다’의 뜻으로, ‘覆 / 覆 / 喪 / 亡 / 隕 / 滅’ 등의 대역어로 쓰였다. 중세 국어에서 ‘석배-(衰朽)’, ‘섯배-(交喪)’, ‘죽배-(喪亡)’ 등의 합성동사가 되었던 것처럼 근대 중국어에서는 ‘망치다’의 뜻을 나타내는 ‘배-’와 ‘에워싸다(圍)’의 뜻을 가지는 ‘싸-/싸-/싸-’가 합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어 한어회화서인 六堂文庫 『騎着匹』(20c초)에는 회귀어들이 많이 출현한다. 학회에서 발표한 것 중 일부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²⁴⁾

‘깡가락하-’는 “말하다”라는 뜻으로, ‘言語’의 대역어로 쓰였다. 조선시대 필사본 한어회화서의 하나인 阿川文庫 『中華正音』(20c초)과²⁵⁾ 육당문고 『騎着匹』에 똑같은 예가 보인다.²⁶⁾

【깡가락-하-】 ㉟ 말하다. 言語 || 먼저봄 봄 문에 니 오습여 량 은을 바다
두더니 어디 둔디 아디 못하가시니 너과 깡가락하미 업더나
(昨个春季受下我的五十多兩銀子, 却不知攔得那裡呢, 勾你言語
些咧沒有啊?) <中華 阿川 4a> 다시 한가지은 나무 덜기을 도
모하여 조용이 저의을 깡가락하여 불스르지 안켜 하미요 척
불스르지 아니한면 솟 안의 닥이 저절노 무류니여니라 (再着

24) 박재연(2011), 「조선 후기 필사본 漢語會話書 六堂文庫 『騎着匹』에 보이는 稀貴語와 借用語에 대하여」(『제3차 역학서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京都大學 인문과학연구소) 참조.

25) 朴在淵·竹越孝 編譯(2010), 『中華正音』, 중한번역문헌연구소, 7쪽.

26) 박재연·김영(2011), 『騎着匹(六堂文庫)·中華正音(華峰文庫)』, 학고방, 101쪽.

一層是畧省柴火, 瞧[悄]沒聲兒的合他們言語些, 不教燒火呢, 一不燒火咧, 鍋裡的鷄自己个兒熟爛嗎?) 〈騎着匹 下32b〉

‘돈길가-’는 “값나가다, 끌리다”의 뜻으로 ‘值錢’의 대역어로 쓰였다. 濯足文庫 『騎着一匹』(20c초)과²⁷⁾ 六堂文庫 『騎着匹』에도 한 예가 보인다. 다른 한 어 회화서에서는 ‘값싸-’로 번역되었다.

【돈길-가-】 ㉞ 값나가다. 끌리다. ㉞ 值錢 || 이편이 여러 가지 돈길가는 물건이 있스나 그는 직은을 변통치 못허 혈슈가 업서 그져 마음이 조급허여서 전여 아무 일을 간섭 아니허고 (各人有些箇值錢的東西, 却是變不過現銀子來, 左右正沒有變法, 只是心裡嘈起唱.) 〈中華濯足 18a〉 인역이 여러 가지 돈길가던 물건이 이스나 또한 직은을 변통하여 니지 못하고 자우로 변통할 수 업스니 다못 마음의 조민하여 (各人有些个值錢的東西, 却是變不過現銀子來, 左右正沒有變法, 只是心裡嘈起查.) 〈騎着匹 上9b〉 우리 이 녀 낱 큰 차 한 낱 적근 차 안의 도시 돈길가던 보물이 있스니 사람 시계 명익키 살펴보와라 (我們這四輛大車, 一輛小車, 裡頭都有值錢的貨物, 教人明白查看.) 〈騎着匹 下7ab〉

‘즘음ㅎ-’는 ‘不記聲兒’의 대역어로 쓰였다. 같은 문헌에 ‘不記聲兒’을 ‘잠잠하-’ 또는 ‘아지 안니하-’로 번역한 예가 있어 “잠자코 있다”, “모르는 체하다”의 뜻 정도로 해석된다. 이는 부정사 ‘不’ 없이 ‘記聲兒’로 나오는 예문에 ‘잠잠하-’의 반의어인 ‘지거리-’로 번역된 데에서도 확인된다.

【즘음-ㅎ-】 ㉞ 잠자코 있다. 모르는 체하다. ㉞ 不記聲兒 || 이리로 하여도 합실치 안코 저리로 반하여도 또 맞지 아니하니 인역이 즘음코져 하되 이은 핏지 못할 것시기 셔들고져 하되 조곰도 몸디로 못하니 가이 엇지하갓너니 (辨[辦]到這頭不合實, 辨到那頭又不對盡, 各人要是不記聲兒罷, 這是小不得的; 要[才+張]那些罷, 一點不隨身, 該怎嗎着.) 〈騎着匹 下25b〉

27) 박재연(2010), 『騎着一匹』, 중한번역문헌연구소, 11쪽.

2.2. 난해어

‘어호로’는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16c초)에서 발견된 어휘로, 조항범(1998)은 이를 미상으로 처리하고 그 의미를 ‘수단, 방법’ 정도로 추정하였다.²⁸⁾ 『필사본 고어대사전』(2010)에서는 조항범의 해석을 따랐으나²⁹⁾ 배영환(2011)의 「조선시대 한글 편지 어휘 사전을 통해 본 어휘의 특징」에서 “문맥상으로 보면 ‘얼’으로 판단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나 형태 분석이 쉽지 않은 어형임”을 지적함에³⁰⁾ 따라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어휘】 罇 ① 방법, 罇 면화는 아무리 있다 었디 보내리 보낼 길히 업거든
 어니 어호로 보내리 <순천김씨9 아기내게 답> 이리사 햐마 어니와
 저른 사름미 그리 가르쁘디 어니 어호로나 좃이 훌홀 짓고 <순천김
 씨70 이리사 햐마> 이실 겨규는 썸도 아니코 가라 햐면 저른 사름
 도 못 견디는 거시 내 가 어니 어호로 이시리 햐니 못 보내거니와
 그 너니 안죽 와시니 누겨 햐마 었디리 <순천김씨71 채셔방 집 답>
 ② 얼. 정신. 낫짜. 이 천흔 계집년은 목숨 살미 좃호거든 어내 어
 호로 부체 츠줄 계교를 햐는다 (潑賤人, 不知高低! 饑了你的性命, 就
 穀了, 還要討甚麼扇子.) <西遊 延世 9:28> 네 임의 방어와 슈어의 정
 녕이면 장국의 무로늑게 잘 쓸혀 이 절의 임미히 굿기던 중을 눈화
 먹여야 울컸든 어내 어호로 살거지라 햐는다 (那怪只叫: “饑命!” 八
 戒道: “正要你鮎魚, 黑魚做些鮮湯, 與那負冤屈的和尚吃哩!”) <西遊 延
 世 9:39> 네 ㄱ장 무례햐여 내 묘당의 작난햐고 날을 상햐와시니
 네 죽을 죄를 디어 두고 선토 아나 어내 어호로 스승을 달난 말을
 햐는다 <西遊 延世 7:41>

필사본 번역 고소설인 연세대 소장 『서유기』(18c초)에 보이는 다수의 용례
 와³¹⁾ 비교 대조해 보건대 ‘얼’은 ‘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문 원

28) 조항범(1998), 『註解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태학사, 71, 363, 368쪽.

29) 박재연 주편(2010), 『필사본 고어대사전』 권5,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학교
 방, 162, 163쪽.

30) 배영환(2011),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 사전을 통해 본 어휘의 특징」, 『조선시
 대 한글편지의 학제간 연구와 사전편찬』 발표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
 연구소, 129쪽.

문에서는 ‘어호로’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한자 또는 한자어는 찾을 수 없지만 앞뒤 문맥상 ‘敢’과 대응되는 다음의 예가 있어³²⁾ ‘어내(니) 어호로’를 ‘무슨 정신으로 감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네 가졌는 병기를 보니 불과 절고소로소니 어는 어호로 노손을 대적하려 호
 나다 (見那短棍兒一頭壯, 一頭細, 却似春碓白的杵頭模樣, 叱咤一聲, 喝道: “孽畜!
 你拿的是甚麼器械, 敢與老孫抵敵!”) <西遊 延世 13:24>

기존의 문헌 『金剛經三家解』(1482)나 『翻譯老乞大』(1517), 진주 유씨묘 출토 『柳時定諺簡』(17c중엽)에서는³³⁾ ‘어머리’는 ‘현격하게’의 뜻이었다.

【어머리】 ㉞ ① 훨씬. 현격하게. ㉞ 터럭만 글우미 이시면 하늘과 싸괘 어머리 隔호리라 (毫釐有差, 天地懸隔.) <金三 2:43> 頓과 漸괘 어머리 달아 優와 劣왜 몹도다 (頓漸懸殊, 愚劣皎然.) <金三 4:49> ▼爭 (多) ㉞ 네 몸 큰 사르든 호 발도 늙과 견조면 어머리 너브리라 (你身材大的人, 一托比別人爭多.) <鬪老 下29a> 인심풍속은 그대드 록 든던 말과 궂든 아니오되 환자로 호여 구항가기 첩경이오니 공스는 비록 평양의셔 어머리 저그나 기 대신오니 도병 몸홀 만 은 슬긔호고 근심이 만스오니 온 일을 호호읍 <柳時定諺簡40 여산와> ……

연세대 소장 필사본 번역 고소설 『서유기』(18c초)에서 ‘하찮게, 시원찮게’의 뜻이 더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⁴⁾

【어머리】 ㉞ …… ② 하찮게. 시원찮게. ㉞ 네 나 쓰는 동쇠를 은 두드리던 저시라 호고 어머리 보저니와 이거슨 불가의 천만 겁 디난 보비 니 엇지 병기와 비기리오 (這不是打銀之錘, 你看: …原來不比凡間

31) 위의 책, 323, 327쪽 참조.

32) 위의 책, 432쪽 참조.

33) 박재연·양승민 탈초·주해(2008), 『晉州柳氏家 墓 出土 柳時定諺簡』, 『京畿東部地域의 古文獻』,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420쪽.

34) 위의 책, 228쪽 참조.

物.)〈西遊 延世 7:42〉

‘티즈’는 ‘볼모, 인질(人質)’의 뜻이다. ‘티즈’는 기존의 고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 어휘는 18세기 한글 필사본 번역역사서인 『즈티통감』(18c중엽)과³⁵⁾ 번역고소설 『후슈호던』(18c중엽)에³⁶⁾ 다수의 예가 보인다.³⁷⁾

【티즈】² 罽 ((사람)) 치자(稚子). 볼모, 인질(人質). 罽 티즈 (質子) 〈課目 人倫 44a〉 ▼任子 || 밋 즈라메 활 빠기를 잘하고 녀력이 과인하고 얼골이 괴워하니 티즈로 낙양의 이시매 왕흔과 왕제 다 등히 너겨 여러 번 천거하니 (及長, 猿臂善射, 膂力過人, 姿貌魁偉, 爲任子在洛陽, 王渾及子濟皆重之, 屢薦於帝.) 〈通鑑 西晉 1:56〉 ▼侍子 || 대단이 보야호로 신의로써 이덕을 디접히시니 엇디 형상 업슨 의심으로써 사람의 티즈를 죽이리잇가 (大晉方以信懷殊俗, 奈何以無形之疑殺人侍子乎?) 〈通鑑 西晉 1:58〉 ▼質 || 괴 가티 아니하다 하고 스스로 도의 드러와 습익딘을 마자 도라가라 하고 저는 머뜨러 티지 되어 디라 하니 (孤不可, 自詣鄴迎什翼犍, 請身留爲質.) 〈通鑑 東晉 5:78〉 이 쇼식이 도당의 드러오니 진희 이세에 다시 인정을 드러 놓흔 벼슬노 드러와 표를 올녀 빅운산을 좃밧고 은냥을 좃고져 하더니 금병이 급히 드러오니 강왕을 티즈로 보내고 화친을 의논하면 (得了這信, 要上表遣人征剿, 恰值金兵信急, 朝臣議和, 要將徽宗第九子康王入金質當.) 〈後水滸 7:25〉 오랑캐 일일 금은을 디식히니 성등 빅성의 지믈을 다 거두워 주고 또 텃하를 반남아 버혀 주고 강왕을 티즈로 보내고 금을 속부로 칭하고 송은 죽해 되어 화친을 구한다 하더라 (日被金人須索, 庫藏皆空, 只得着在京官員以及富商各助金餉. 李邦彥主和, 割三大鎮二十州, 屬金管轄, 又見張昌邦奉康王入金質當, 稱金朝爲叔父, 宋朝爲侄兒.) 〈後水滸 8:27〉 볼모 되어 금영의 드러가 금태즈와 활빠기를 결워 다숫 살이 년혀여 관을 마치니 금인이 장슈의 조식이라 의심하야 다른 티줄 밧고야 잡아가고 (與金求和, 將他質當于金, 一日與金太子較射, 康王連中五矢, 金人疑是將種, 被拘索換.) 〈後水滸 11:39〉 ※ 以父蔭官其子孫, (任子) 〈語初 26a〉 ⇨ 볼모

35) 이현희·박재연·김민지(2010), 『즈티통감資治通鑑』, 학고방, 14, 15, 119쪽.

36) 박재연(1996), 『후슈호던後水滸傳』, 학고방, 155, 178, 252쪽.

37) 박재연(2010), 「『필사본 고어대사전』 편찬에 대하여 - 번역고소설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학회』 16, 한국사학회, 175-176쪽.

위에서 보듯 ‘티즈’의 대역어로 ‘(質)子’ /任子 /侍子’ 등이 쓰였다. 이 가운데 ‘任子’는 『語錄解』 초간본(1657)에 ‘以父蔭官其子孫.(26a)’로 풀이되어 있다. 『漢語大詞典』(1994)에서는 ‘任子’를 “① 부형의 공적에 의하여 자손을 관직에 등용시키는 일.³⁸⁾ ② 인질(人質).³⁹⁾”로 풀이하여 두 가지 뜻이 있음을 밝혔다. ①의 풀이가 『語錄解』의 석의와 일치한다. 그런데 이 단어는 ② ‘인질’의 뜻으로 전이되었다. 이는 진(晉)나라 때 소준(蘇峻)이 모반한 뒤로부터 여러 장수들이 자기의 아들을 볼모로 잡혀 충심을 보이게 하던 법령”을 ‘任子之法’⁴⁰⁾이라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여기서 「顏師古注」에 ‘任’은 ‘保也’라고 석의하였으므로 “보증하다 / 담보하다”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任子’는 ‘담보로 세우는 어린 아들’ 정도로 풀이된다.

‘侍子’ 역시 『漢語大詞典』에 의하면 “천자국의 볼모가 되어 천자를 시종드는 제후국이나 속국의 왕자”⁴¹⁾를 뜻하므로, ‘티즈’가 ‘인질’ 또는 ‘볼모’의 뜻이 있음이 명확해졌다. 문제는 이 ‘티즈’가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한자어라면 그 한자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근자에 아래 예문에서 보듯 ‘티즈’의 대역 한자어로 ‘稚子’를 찾아내었다.

【티즈】 〔圖〕 ((사람)) 치자(稚子). 열 살 전후의 어린 아들. 〔稚子 || 공이 물을 거스려 멀리 정벌할지 노모와 티즈로 족하를 맞대시니 만일 일회나 미진하면 어이 이리허리오 (公溯流遠征, 以老母稚子委節下. 若一豪不盡, 豈容如此邪!)〕 <通鑑 東晉 11:58>

위 예문에서 ‘稚子’는 ‘어린 아들’을 뜻하지만,⁴²⁾ 어린 아들을 볼모로 삼는

38) 夫所謂任子者, 亦猶曰信其父兄而用其子弟云爾. (蘇洵, 『上皇帝書』)

39) 曹操下書袁孫權任子, 權召羣僚會議, 張昭·秦松等猶豫不決. <胡三省注> 任, 質任也. (『資治通鑑』, 漢獻帝建安七年)

40) 自蘇峻反後, 諸將多以子爲質, 謂之保任. 至是, 王導慮郭默之不可制, 乃詔, 除任子之法. (『晉書, 元經傳』)

41) 鄯善王·車師王等十六國, 皆遣子入侍奉獻, 願請都護, 帝以中國初定, 未遑外事, 迺還其侍子. (『後漢書, 光武帝紀 下』)

42) 위의 책, 254쪽. 『필사본고어대사전』(2010) 제7권 122쪽 ‘티즈’ 항에 ‘볼모’의 뜻으로 잘못 처리하였으나 박진호 교수의 지적으로 바로잡는다.

다는 점에서 '稚子'의 한자음 '티즈'가 “볼모”의 뜻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로 『訓蒙字會』(1527)와 『新增類合』(1576)에서 '稚'를 '티'(上17a / 下16b)로, '子'를 '즈'(上16b / 上10a)로 읽고 있어 '티즈'의 표기와 일치한다.

'금장/금장'은 기존의 장편 가문소설에 흔히 보이는 단어이나 기존의 국어 사전이나 중국의 『漢語大詞典』에조차 해당되는 한자어가 없어 궁금해 했던 것이다.

【금장】 𠄎 ((인류)) 동서(同壻). 𠄎 제스 금장 숙미 등이 다 치위하니 조쇼 제 존당 구고 숙당의 은턱을 감황하여 머리를 두다려 스투하고 버거 제스 금장 숙미의 후의를 차례로 화답하여 좌슈우옹의 답언이 궁진치 아니터라 <운하당 81:60> 또 구고의 노년을 니축하여 신훈의 네를 폐하미 희를 포집을 줄을 창연하여 즈미 금장이 중당의 모다 유유히 슬프를 먹음고 암암히 옥누를 나리와 <운하당 86:15> 구고를 섬기미 숙홍야미하여 동동축축하며 숙미 금장을 우공하고 군즈를 승순하니 <업효 10:18> 내 외로운 인성이 구가의 니르미 쇼고 금장의 즐거오미 업서 즈취 처량하고 그림지 외롭거늘 더욱 군지 스군하여 집을 써나미 구고의 요격하심과 나의 격막하미 노장 심하더니 <님화 41:22> 우호로 낭숙은 바라미 망단하니 혈혈잔천이 슈슈 금장의 우이 업스미 어터를 밧고 솔니오 <님화 44:20> 소시 니시를 꾸디져 거짓말노 금장을 희하디 하니 니시 분노하여 브디 제 말을 세오려 하여 향미를 후디하고 다리어 인정을 주며 계교를 ㄱ르치니 <님화 48:65> 쇼첩은 존고를 피셔 도석 감디를 소임하오미 한가치 못흔 고로 두 당의 호로 두 써 문안의 단녀가고 쇼고 금장의 무리 도석 상종을 아니하니 이 당이나 쳐 당이나 므스 일하는 줄 모로업거늘 더욱 은밀디스를 엿디 아오리잇고 <님화 53:21> ⇒ 금장

【금장】 𠄎 ((인류)) 동서(同壻). 𠄎 허부인과 가시 등 제스 금장이 이 거동을 보미 <한조 13:56> 구문의 니르미 구괴 여니 스롭과 달나 고위흔 품이 잇고 제스 금장이 번성하야 가히 두리고 조심할 곳이라 <화당 15:52> 티스 부부와 최 범 당 숨위 금장과 설복야 부인이 각각 즈질을 두긋기는 가온디 선오왕을 생각하여 추연감체하믈 이긋지 못하니 <업효 29:58> 금장 낭인이 혼ㄱ지로 봉순구고하며 공경군즈하여 디스답빈의 규구의 응목하미 준승의 함도하고 <성현

1:7) ⇒ 금장

그런데 건륭 연간의 중국소설 『女仙外史』에서 한자 ‘襟丈’이 한글 번역본에 ‘동셔’로 번역되어 있는 예를 찾아내었다.⁴³⁾

다만 보미 노가인이 드러와 품혔디 요상공이 와 계시이니다 하니 이는 곳 효렴의 동셔라 (只見老人家進來稟道：‘姚相公來到。’就是孝廉的襟丈。)〈女仙 1:121〉

기존의 국어사전뿐만 아니라 『漢語大詞典』의 누락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어라 아니할 수 없다.

2.3. 잔존어와 사어

지난 세기 우리 학계에서 간행된 ‘고어사전’들은 특히 근대국어 시기의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소략한 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그 고어사전들 곳곳에 나타난 빈 공간을 『고어대사전』에서 기술된 어휘와 용례들을 통해 충분히 메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어의 경우, 고어사전들에서 수집한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어느 시기까지 쓰이다가 사어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중세국어 시기에 쓰이다 근대국어 시기에 사라진 어휘들도 『고어대사전』에서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드-’라는 단어는 중세국어 자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곡식이나 열매 따위를 수확하다/구름이나 안개, 비 따위가 걷히다”의 의미로 쓰였다. 같은 시대에 ‘거두-’라는 표기와 같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중세 이후에 ‘가드-’는 쇠락을 길을 걷게 되고 ‘거두-’만 남았다.

【가드-】¹⁾ ㉠ 거두다. 곡식이나 열매 따위를 수확하다. ㉡ 가들 슈 (收) <光千 2a> ㉢ 收 || ·뻬 보미 나·며 너·르·메 : 길며 ㉣ 술·히 가·드며 거·스레 갈·며며 ·드·리 두·려우·며 ·드·리 이·즈며 고·지·프며 고·지 : 두매 니·르리 (以至春生夏長, 秋收冬藏圓月缺, 花開花

43) 정창권·손지봉·안병국(2005), 『녀선의외사女仙外史』上, 이희, 21쪽.

落)〈金三 2:6b〉 ㉒ 살림이나 몸을 치닥거리하며 가꾸거나 돌보
다. ㉓ :나치 :다 ㉔ 장 잇·비 :사름 爲·흐신 時節·이라 城·의·드
러 乞食·흐시·며·옷·가드·시고·밭·시스·샤·란·아·직·들디어
·니와 (一一皆是徼困爲人底時節, 入城乞食收衣洗足且置.) 〈金三
1:31b〉 ㉓ 잠잠하게 하다. ㉔ 南紀·에 波瀾·을·가·드리·로소·니 西
河·入 風味·와·다·못·흐·리·로·다 (南紀收波瀾, 西河共風味.) 〈杜初
6:23a〉 ⇒ 가드-, 감-, 거두-, 거드-, 거드-, 견-, 견으-, 갓-

【가드-】 ㉒ ㉓ 구름이나 안개, 비 따위가 걷히다. ㉔ 收 || ·구루·미·가·드·며
·비·개·여·바·라·리·물·㉔·며 虛空·이·물·가·갠·돌·와·빗난·브
름·과·서르 和·며 (雲收雨霽, 海湛空澄, 霽月光風相和.) 〈金三
1:4a〉 ·구루·미·가·드·며·비·개·며·바·라·리·물·㉔·며 虛空·이
물·고·물·바·라·得·흔다·라 (直得雲收雨霽, 海湛空澄.) 〈金三
1:14a〉 이에·다·다·란·구루·미·가·드·며·비·개·며·바·라·리·물
·㉔·며 虛空·이·물·고·미·궂·흐·야 (到這裏一似雲收雨霽, 海湛空
澄.) 〈金三 1:14b〉 楚·入·두·들·게·새·비·가·드·니·뽕·臺·에·㉔·는
브·라·물·:혀·라 (楚岸收新雨, 春臺引細風.) 〈杜初 15:55b〉 ▼卷 || :센
머·리에 凋喪·호·물·들·히·너·기·노·니·프·른·구루·믈·또·가·드·락
퍼·락·:흐·듯·다 (白髮甘凋喪, 靑雲亦卷舒.) 〈杜初 20:34a〉 ▼捲 ||
오·직·이·흐·우·뭇·모·미·:브리 情·업서·고·들·조·차 方·호·며
圓·흙·궂·며·구루·미·믈·슴·업서·가·드·며·:퍼·물·:쥬·변·흙·궂
도·다 (只此一夢身, 似水無情逐處方圓, 如雲無心捲舒自由.) 〈金三
5:7a〉 ⇒ 가드-, 감-, 거도-, 거두-, 거두우-, 거드-, 거드-, 견-,
견으-, 갓-

【거두-】 ㉒ ㉓ 곡식이나 열매 따위를 수확하다. ㉔ 거둘 슈 (收) 〈石千 2a〉
거둘 슈 (收) 〈女小學 2:40b〉 〈一愚生 미도관〉 거둘 슈 (收) 〈類
下 26b〉 거둘 슈, 俗稱“收割”. 聚也. (收) 〈訓下 雜語 3a /5b〉 거둘
식 (穡) 〈松千, 紅千 21b〉 거둘 식, 斂之曰“穡”. (穡) 〈訓下 雜語
3a /5b〉 거둘 식, 種曰“稼”, 斂曰“穡”. (穡) 〈字上 75a〉 거둘 썩
(穢) 〈一愚生 미도관〉 곡식 거두다 (收田禾) 〈譯下 田農 8b〉 ▼收
|| 錦里·에·:사·는·先生·이·거·른·:쌀·잇·는·頭·巾·이·로·소·니·위·안
·해·:토·란·과·:바·물·거·두·위·:드·릴·시·오·오·로·가·난·티·아·나·흐
도·다 (錦里先生烏角巾, 園收芋栗不全貧.) 〈杜初 7:21b〉 이제·에·거
두·기·를·므·즈·니·디·는·히·에·남·오·흐·는·니·와·쇼·머·기·는·니·만·토·다 (是時
收穫竟, 落日多樵牧.) 〈古眞 2:89〉 네·독·별·이·모·르·는·고·나·전·년·부터
하·늘·히·:마·라·田·禾·를·거·두·디·못·흐·니·飢·荒·호·전·츠·로·아·니·완·호·는·사
릅·어·낫·는·니·라 (你偏不理會的, 從年時天旱, 田禾不收, 飢荒的上頭,

生出歹人來。)〈老上 24a〉우리 여기 올히 너르메 하늘히 ㄹ물오
 ㄹ술히는 ㄹ리 채여 던희 거두디 못흐니 (我這裏今年夏裏天旱了,
 秋裏水澇了, 田禾不收的.)〈齣老 上53a〉우리 여기 올 너름의 하늘
 히 ㄹ물고 ㄹ올히 ㄹ끼여 田禾를 거두디 못흐니 (我這裏今年夏裏
 天旱了, 秋裏水澇了, 田禾不收的.)〈老上 48a〉올히 ㄹ물락 ㄹ끼이
 락 흐야 거두디 못흐 전츠로 일빅 낫 돈에 ㄹ고물 흐 말 ㄹ을 흐
 니 (今年爲旱澇不收, 一百箇錢, 糶的一斗米.)〈齣老 上54a〉올히 ㄹ
 물고 ㄹ끼여 거두디 못흐 전츠로 一百 낫 돈에 흐 말 ㄹ을 ㄹ고
 려니와 (今年爲旱澇不收, 一百箇錢, 糶的一斗米.)〈老上 48b〉나도
 드로니 올히 여기 던희를 거두디 못흐다 흐는다 (我也打聽得, 今
 年這裏田禾不收田禾.)〈齣老 上55a〉나도 듯보니 올히 여기 田禾를
 거두디 못흐다 흐더라 (今年這裏田禾不收田禾.)〈老下 49a〉던희들
 다 거두면 팔월 초상에 나시리라 (把田禾都收割了時, 八月初頭起.)
 〈齣朴 上53b〉田禾를 다 거두어 비면 八月 初生에 ㄹ동홀러라
 (把田禾都收割了時, 八月初頭起.)〈朴上 48a〉어제 삼을 다 거두어
 비여시니 ㄹ물 시므자 (夜來箇都收割了麻, 種菜來.)〈朴中 33b〉民
 間에 田禾를 다 거두어 비기를 기드려 八月 초상에야 ㄹ 起程홀러
 라 (等到民間田禾都收割了, 八月初頭纔起程哩.)〈朴新 1:52a〉어제
 삼을 거두어 비여시니 正히 맛당이 ㄹ물 시름이 도타 (夜來收割了
 麻, 正當好種菜哩.)〈朴新 2:39a〉▼收成 || 지난 희에 ㄹ년스 | 荒
 旱여 田禾를 거둔 거시 업스므로 이피셔 이 저기 사오나온 사름
 이 ㄹ스니라 (因去年年成荒旱, 田禾沒有收成的上頭, 就生出這些歹人
 來了.)〈老新 1:33b〉㉑ 흠어져 있는 물건 따위를 한데 모오다.▶
 거둘 괄 (括)〈音韻 4a〉거둘 괄, 繫也, 結也. (括)〈字上 34b,
 62b〉거둘 줍, 斂也. (戢)〈字下 39a〉거둘 줍, 績也, 縫緝. (緝)
 〈字上 83a〉收也, 收也, 거둘 · 가질 (取)〈新一 20a〉收也, 거둘
 (拾)〈新二 11b〉거둘 숙, 拾也. (叔)〈註千 15b〉斂也, 거둘 협
 (脅)〈釋下 40a〉거두어 가질 흠, 斂持. (扱)〈醫書玉篇 9〉거둘
 흠 (扱)〈女小學 2:29b〉거두어 사다 (收買)〈譯上 賣買 68b〉취
 거두다 (攝書)〈課目 雜類 105b〉▼收 || 그디 황냥흐 오수의 버려
 거두디 아니를 보디 못흐다 잇다감 노는 사름이 이셔 비를 ㄹ박아
 ㄹ노소다 (君不見荒涼涿水棄不收, 時有遊人打碑賣.)〈古眞 5-1:18〉
 ㄹ곳 그린 나던이 짜히 버려 사름이 거두리 업스니 비췌 잇과 금새
 와 옥은 마리에 ㄹ쳐소다 (花細委地無人收, 翠翹金雀玉搔頭)〈古眞
 5-1:215〉거두면 잇고 노흐면 일스니 사름될 도리는 브즈런이 비
 호매 잇스니라 (收之則存放之失, 爲人之道在勤學.)〈浩然齋 上28a〉

내 山東 濟寧府엿 東昌 高唐 근처들해 가 깃과 고로와 소음들 거두워 사 王京의 도라가 풀라 가노라 (我往山東濟寧府東昌高唐, 收買些絹子、綾子、絁子, 迴還王京賣去.) <飜老 上12b> 내 山東 濟寧府엿 東昌 高唐의 가 깃과 능과 소음을 거두어 사 王京의 도라가 풀라 가노라 (我往山東濟寧府東昌高唐, 收買些絹子、綾子、絁子, 迴還王京賣去.) <老上 11b> 내 山東 濟寧府엿 東昌縣 高唐縣에 가 저기 □필과綾과 소음과 비단을 거두어 사 王京에 도라가 풀려 흐노라 (我要往山東濟寧府東昌縣高唐縣, 收買些絹疋綾子涼花絁子, 回到王京賣去.) <老新 1:15b> 내 전년회 되번 조차 高唐의 가 소음과 깃들 거두워 사 王京의 가져가 폰라 저기 니천 어두라 (我年時跟着漢兒火伴到高唐, 收買些絁絹, 將到王京賣了, 也尋了些利錢.) <飜老 上13a> 내 전년의 漢人 벗 조차 高唐의 가 소음과 깃을 거두어 사 王京의 가져가 폰라 저기 니천 어드와 (我年時跟着漢兒火伴到高唐, 收買些絁絹, 將到王京賣了, 也尋了些利錢.) <老上 12a> 내 그 히에 中國人 사람을 쓰라 高唐에 가 저기綾과 깃을 거두어 사 王京에 도라가 폰니 쏘 저기 利錢을 어들러라 (我當年跟着中國人到高唐, 收買些綾絹, 回到王京賣了, 也得些利錢.) <老新 1:16a> 五月에 高唐에 가 저기綾과 깃을 거두어 사 直沽에 가 빅 타 바다 (五月裏到高唐, 却收買些綾絹, 到直沽裏上船過海.) <老新 1:18b> 뭇똥이 주서 광조리 안해 다마 잇느니 거두워 드러 오고 다른 사람 가져가게 말라 (糞拾在筐子裏頭, 收進來, 休教別人將去了.) <飜老 下35b> 뭇똥을 주여 광조리 안히 이시니 거두어 드러 오고 다른 사람 가져가게 말라 (糞拾在筐子裏頭, 收進來, 休教別人將去了.) <老下 32a> 네拜티 아니흐면 내 香案을다가 거듬이 무던흐이다 (你不拜了, 我把香案收起罷.) <伍倫 7:4a> ▼收(起) 〓 五月에 高唐의 가 소음과 깃들 거두워 直沽에 가 빅 타 바다 건너 (五月裏到高唐, 收起絁絹, 到直沽裏上船過海.) <飜老 上15a> 五月에 高唐의 가 소음과 깃을 거두워 (五月裏到高唐, 收起絁絹.) <老上 13b> 左右 | 아 네 내 이 칼을다가 거두어 가고 더 把都兒들의게 슈혀어 므른 지조 인는 이다 와 逞獻하라 (左右, 你將我這劍收起去, 令那把都兒每, 但有本事的都來逞獻.) <伍倫 8:18a> 너 이 우피 근본 〓 지방의셔 거두어 살썩에 남보담 만든 갑슬 니고 사온 거시니 너 네티로 사고져 니스름 읍셔도 저어 아니흐다 (我這個牛皮底根在本地收買的時候乙, 比人家多出大價買來的呢! 隨你的邊[便]要罷, 我不怕沒有人要.) <學清 4b> 제원 물건은 조튼지 그르던지 쏘 시세는 엇더허든지 다만 시가터로 거두어 사기를 났헌 후의 일제이 심양으로 시녀셔 시세더

로 팔되 (管他東西好歹, 又不管行市怎嗎的湊兒, 只照時價收買趕了咧, 一齊發得瀋陽, 隨行發賣.) <中華 濯足 4a> 자기 거스 한 장도 과거 못하고 무어슬 위하여 남의 희를 거두어 사깃는니 自己的連一張貨賣不出去咧, 爲甚嗎收買人家的呢?) <中華 濯足 34a> 만약 그러치 아니하면 이편이 처음 먹은 것도 싱키 못하여는디 엇지 또 남의 희를 거두어 사깃는니 (若不是那嗎着, 連各人頭裡吃的也吞不下去, 如何又是收買人家的呢?) <中華 濯足 36a> 어시 웃고 시전을 거두어 스미의 너코 고금을 논문하며 문장 고하를 의논홀시 <벽허담 3:20> 도적이 동문을 열고 나와 버린 갑옷과 전마 기계를 다 거두고 미처 도라오디 못흔 군스 세 명을 사로잡아 성등으로 드러가니 <신미록 1:35> ③ 시체, 유해 따위를 수습하다. 屍收也. “殮殮”. 거둘 렫, 斂也. (殮) <字下 19a> 흰 뼈를 거두어 피화 (收合白骨.) <東新孝 3:41b> 죽은 군스의 버린 뼈를 깎을 훗터 거두시고 주린 사람의 폰 즈식을 금을 논화 부르도다 (亡卒遺骸散飯收, 飢人賣子分金贖.) <古眞 5-1:8> ④ 하던 일을 그만둔다. 收 || 큰 獸를 빚내 여르샤 禪波를 欲浪에 띄우시니 이룬드로 金棺에 비출 7리 오시며 玉毫에 비출 거두어시닐 (光闡大猷, 汎禪波於欲浪, 是以金棺掄耀, 玉毫收彩.) <永序 5b> 하·눌히·치·운 제 머·리 노·히·니 그러·기·를 : 변·호·얏·도·소·니·나·리 저·물·어·늘 거·두·디 아·니·히·니 가·마·괴 : 현·디·를·딕·막·눅·다 (天寒遠放鴉爲伴, 日暮不收烏啄瘡.) <杜初 17:27b> 보기와 듯기를 거두어 뼈 넘너를 뭉게 힘이며 내 마음을 조히 지게하여 뼈 정성을 드릴디라 (收視聽以清虛兮, 齋予心以薦誠.) <古眞 6:50> 거두어 뭇다 (收殺/收斂) <課目 雜類 107b> 거두어 뭇다, 畢終也. (收殺) <語初 6b> <語重 9b> 거두어 뭇다, 畢終也. (收殺了) <語初 18b> <語重 33a> ⑤ 보살피거나 가꾸거나 돌보다. 斂 || 거둘 진 (振) <釋上 50a> <新二 12a> 거두어 보습히다 (收攬) <漢清 助濟 6:46b> 왕매 복디하여 크게 울며 날오디 희의 야야의 거두어 기르시를 넘어 즈라나민 은혜를 감디 못하고 엇디 춤아 써나리잇고 바라건대 머므러 부즈의 정을 상케 마르쇼셔 (王摩聽見趕逐, 便伏地大哭道: ‘孩兒得阿爺收養成成人, 并没報答, 怎敢拋離! 是必收留, 莫壞父子情分!’) <後水滸 6:35> 거두어도 하늘이요 먹기도 하늘이요 (收也憑天, 憑天吃飯.) <你呢貴姓 26a> 디명이 아모 곳인 줄 모르고 근본 모르는 9희를 거두어 용납홀 사람이 업스온지라 <한조 11:28> ⑥ 살림이나 몸을 치다거리하며 가꾸거나 돌보다. 斂 || 남진이 잇디 아니커든 상즈에 벼개를 거두워 녀코 산과 돛과를 집켜 둥히 간수홀 디니 (夫不在, 斂枕篔

簟席褥, 器而藏之.) <飜小 3:17a> 남진이 잇디 아니커든 벼개를 상
 즘에 거두며 산과 돛굴 집쳐 둥히 녀겨 간수홀디니 (夫不在, 斂枕篋, 簟席褥, 器而藏之.) <小學 2:50b> 남진이 잇디 아니커든 상즈에
 벼개를 거두워 녀코 산과 돛과를 집쳐 둥히 간수홀 디니 (夫不在,
 斂枕篋, 簟席褥, 器而藏之.) <飜小 3:17a> 남진이 잇디 아니커든 벼
 개를 상즈에 거두며 산과 돛굴 집쳐 둥히 녀겨 간수홀디니 (夫不
 在, 斂枕篋, 簟席褥, 器而藏之.) <小學 2:50b> 門 닫고 자취를 거두
 어 머리 움치고 일흠과 勢를 避하라 유세호 벼스른 오래 이쇼미
 어려오니 내종내 엇디 足히 미드리오 (閉門斂蹤跡, 縮首避名勢, 勢
 位難久居, 畢竟何足恃.) <小學 5:24b> ▼籍 || 히마다 각각 그 무리
 홀 사람을 도첩하야 하야곰 디마다 츠디호고 그 짜히 드는 바를
 거두어 때로때 그 수우를 슈리하며 그 초목을 봉식호고 (歲各度其
 徒一人, 使世掌之, 籍其地之所入, 以時修其祠宇, 封殖其草木.) <古百
 5:49a> 민망하야 오미 씨로 니마를 거두엇고 흥하야 가미 머리를
 몇 번 돌쳤는고 (悶來時斂額, 行去幾回頭?) <紅樓 1:59> ㉠ (군사,
 도적 따위를) 거두다, 붙잡다. ㉡ 收 || 이제 狀을 ㄹ초와 某官의 申
 告하노니 伏乞 詳狀하야 檢驗하야 이 실커든 當該 地分 弓手人等으
 로 하야 上件賊人을 거두어 잡아 官에 보내야 施行하쇼셔 執結이
 이 실하니 업디야 處分을 取하노이다 (今具狀申告某官, 伏乞詳狀,
 檢驗是實, 着當該地分弓手人等, 收捉上件賊人, 赴官施行, 執結是實, 伏
 取處分.) <朴下 53a> ㉢ 여러 사람에게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
 아들이다. ㉣ 거둘 렴 (斂) <訓下 雜語 9b /21a> <類下 26b> <女小學
 3:9b> 收也, 거둘 렴 (斂) <釋上 57b> 거둘 렴 (斂) <女小學
 2:27a> 斂也, 거둘 수 (收) <釋上 56a> 거둘 세, 斂也. (稅) <註千
 28b> 斂也, 거둘 세 (稅) <釋下 20a> 斂也, 거둘 (徵) <新一 52a>
 거둘 추, “聚斂”. (聚) <註千 21a> ▼收 || 아오란 ㄹ만홀 보람이 잇
 고 인은 업느니 報信하느니는 석 냥이오 거두어 어드니는 옛 냥
 을 하야 덜로 하야 가져가게 호고 물을 어더든 더를 一半 갑술
 주고 물러 가져오리라 (有甚暗記沒印, 報信的三兩, 收討的六兩, 着他
 將的去, 得了馬時, 與他一半兒錢贖將來.) <朴下 55b> 本年 月日에 기
 르마 지은 흰 말 홀 鬃을 일허시니 나히 현이라 報信하느니는 이
 銀 석 냥을 주고 거두어 두니는 銀 옛 냥을 샐레히리라 (本年月
 日, 失去帶鞍白馬一匹, 牙幾歲, 報信者給銀三兩, 收管者謝銀六兩.) <朴
 新 3:54a> 夫人이 寬을 시험하야 히여곰 노케 호고자 하야 朝會에
 다드른 적을 기들워 민무숨을 이피 다 하엿거늘 피신 종으로 히
 여곰 고깃국을 받드려 업터 도복에 더러이고 종이 문득 거두더니

(夫人欲試寬令恚, 伺當朝會, 裝嚴已訖, 使侍婢奉肉羹, 翻污朝服, 婢遽收之.) <小學 6:102a> ▼斂 || 우리 여러 도흔 벗들이 이 八月 十五日 中秋節에 대되 저기 돈 거두어 卍 賞月會를 卍 홈이 엇더호노 (卍 幾箇好朋友們, 這八月十五日中秋節, 大家斂些錢, 做箇賞月會何如?) <朴新 1:27b> ▼科斂 || 양지를 칼 써워 길에 올으니 蕁한고 대호의 사람들이 은량을 거두어 두 낫 공인을 주며 (天漢州橋那幾個大戶, 科斂些銀兩錢物, 等候楊志到來, 請他兩個公人一同到酒店裏吃了些酒食, 把出銀兩資發兩位防送公人.) <水滸 新文 1:11:117> 서로 돈을 거두어 토지대왕의 묘 압헤 일좌 소오산을 만들고 상명에 비단으로 ㅅ을 ㅅ하여 ㅅ고 오칠빅 지 등잔을 ㅅ고 (科斂錢物, 去土地大王廟前, 扎縛起一座小鰲山, 上面結彩懸花, 張掛五百碗花燈.) <水滸 新文 2:32:169> 문을 ㅅ고 니외를 뒤여 ㅅ은 보화를 거두어 ㅅ고 청녀를 치쳐 도주히미 간 ㅅ이 업순지라 <화당 6:4> ㉑ (마음, 흥, 기운, 눈물 같은 것을) 그만두거나 그치다.▶ 거두다 (收了) <方四 雜語 28b> <譯補 動靜 26a> 通稱 거두다 (收了.) <同上 動靜 30a> <蒙上 動靜 22b> ▼收 || 이젯 선비들히 글 지조를 비화 베클 ㅎ기 구ㅎ는 ㅅㅅ을 ㅅ겨 가져다가 일ㅎ는 ㅅㅅ을 거두어 그 모 ㅅ 아름답게 ㅎ면 엇디 ㅅ 사르미게 ㅅ 미즈리오 (今之儒者, 移學文藝干仕進之心, 以收其放心, 而美其身, 則何古人之不可及哉.) <籲小 8:24a> 이젯 선비 글지조를 비화 베클ㅎ여 나아가기 구ㅎ는 ㅅㅅ을 ㅅ겨 ㅅ 그 노흔 ㅅㅅ을 거두어 그 ㅅㅅ을 아름답게 ㅎ면 엇디 ㅅㅅ의게 ㅅ히 ㅅ디 ㅅ미즈리오 (今之儒者, 移學文藝干仕進之心, 以收其放心, 而美其身, 則何古人之不可及哉.) <小學 5:103a> 강산풍경을 보미 ㅅㅎ니 호기로운 흥이 연연ㅎ야 ㅅ든 거두디 못ㅎ ㄴ도다 (江山風景看不足, 豪興娟娟却未收.) <浩然齋 上14b> 오직 사 ㅅ이 만물 가온더 귀ㅎ니 오ㅎ의 정ㅎ 기운을 ㅅ 거두엇도다 (惟人最貴萬物中, 五行正氣偏收得.) <浩然齋 上27b> 부인기 하직ㅎ고 제 형데로 니별ㅎ매 쇼저로 더브러 ㅅ을 니어 육뉘 경경ㅎ니 능히 거두디 못ㅎ더라 <낙성 1:84> ㉒ (명을) 거두다.▶ 엄명을 거역 ㅎ 죄를 ㅅㅅ고 이 명을 거두시를 비느이다 <명행 3:2> ⇒ 가든-, ㅅ-, 거든-, 거두-, 거두우-, 거든-, 거든-, ㅅ-, ㅅ-, ㅅ-

【거두-】²⁾ ㉑ 구름, 안개, 비 따위가 ㅅ히다.▶ 收也, 거둘 권 (捲) <釋上 51b> ▼收 || 강 하늘의 비 새로 거두어시니 ㅅ 날이 새벽 구름 휘로다 (江天新雨收, 晴日曉雲後.) <浩然齋 下22b> ▼卷 || 여-러 :뫼:고래-치움 :나미 이르-니 :ㅅ 수-프레 :안-개 거-두미 ㅅ죽-ㅎ도-다 (衆壑生寒早, 長林卷霧齊.) <杜初 15:17a> ▼捲 || 프른 구름이 ㅅ른

회희 거두니 붉은 희 붉은 물의 비치는도다 (綠雲捲暮嶽, 紅日映滄波.) <浩然齋 上11a> ⇒ 가드-, 갈-, 거도-, 거두-, 거드-, 거드-, 갈-, 걸으-, 것-

기준에 중세국어에만 나타났던 우리말 ‘도산’은 『翻譯朴通事』(1517)에 처음 보이는데,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선물(贈物)’ 또는 ‘뇌물’이라는 뜻을 가진다.

【도산】 ㉟ 선물(贈物). ㉞ 人事 || 만히 갖게이다 누의님하 내 도라오면 만히 너를 도산 주마 (多謝姐姐, 我回來時, 多多的與你人事.) <翻譯 上48b>

근대중국어 ‘人事’의 대역어로 쓰였다. 근대 중국어에서 ‘人事’는 대역섯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말 ‘인스’에서도 그 뜻이 다양하게 쓰였음이 확인된다. 다음은 『고어대사전』에 실린 표제항 【인스】에 관한 대목이다.

【인스】 ㉟ 인사(人事). 사람의 일 또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 ㉞ 規矩 || 인스 잇는 스람 (曉得規矩的人.) <語錄彙編 水滸 21a> 금일 초목은 의구회되 인시 이러툃 변혀여시니 엇디 슬프디 아니리오 <뉴삼 박순호 1:74> 이제 이 아히는 인스를 모르디 오히려 도적질하기를 잘하니 제 일흠을 적이라 지어 주었더니 가히 맛다 <벽북 11a> 이 兩班이 밤 먹노라 호고 인스 아는 테하니 흥 번 아모조로나 쏘을 먹일 거시라 호고 벼로고 잇더니 <酉年工夫 30>

【인스】 ㉞ ㉟ 인사(人事).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예를 갖추는 일. ㉞ 인스 더답하란 말 (接喏) <語覽 西遊 62a> 인스, 曰寒溫 (寒暄) <西廂 博文 139> ▼寒溫 || 어디셔 인스를 펴고 말을 하라너나 (那里敘寒溫對話.) <西廂 博文 139> 네 삼촌이 스옹데되매 지간혀여 인혀여 싱티는 주귀 혀여시니 삼촌피 인스나 덕어라 <仁宣王后1618-1674 37 宸翰帖乾 국립청주박물관> ㉞ 인사치레. 예물. 선물(贈物). ㉞ 인스 출여 (收拾些人事.) <語錄彙編 水滸 19a> ※ 芝峯曰: “《雲谷難記》曰: ‘今人以物相遺, 謂之人事.’” <洛閩 事> ▼人事 || 이 高麗入筆墨과 스므 당 큰 조히를 가져가 人事로 서르 아는 弟兄을 주라 (這的高麗筆墨和二十張大紙將去, 人事與相識弟兄.) <朴下 62a> 多謝혀려라 각시아 내 도라올 때에 만히 人事를 가져 네게 還禮혀마 (多謝姐姐, 我迴來時候, 多多的帶些人事與你還禮罷.) <朴新 1:47a> ⇒ 인사 ⇔ 인정

【인스】³ ㉔ 사람의 정신·의식 따위를 분별하는 힘. ㉕ 시궐병은 몸에 뭍이 다 움죽이되 인스를 몰라 얼굴이 주검 ㄱ뚝으로 일흠을 시궐이라 호느니 (尸厥之病, 身脉皆動而形無知, 其狀若尸, 故名曰尸厥) <언해구 급방 上8a> 푸지를 열고 금바리를 갖다가 물을 써서 흥즈을 주니 흥즈 바다 진언을 염호며 범을 향호여 흥땃당 흥벅이 쏘으니 삼창이 그제야 인스를 츠려보니 손흥즈 왓거늘 (取了行李馬匹, 將紫金鉢盂取出, 盛水半盂, 遞與行者, 行者接水在手, 念動眞言, 望那虎劈頭一口噴上, 退了妖術, 解了虎氣, 長老現了原身, 定性睜眼, 才認得是行者.) <西遊 영남대 3:108> ㄱ뚝 정신이 상실호디 더욱 혼난호야 인스를 못 출혀 들이 푼오디 글시도 보옵시긔 못호니 정니에 어느만 박히 너기옵시거뇨 호옵노이다 <仁穆大妃1623직후 인빈에 호오신 글월> 열 나 발광호여 인스 모르다가 야그로 여를 빼 이제는 다 묘화시디 보르물 두려 드린노라 <순천김씨60 슈니 지비> 나는 그것긔 오 후브터 니질을 등히 호여늘 니질인가 호더니 히 딘 후 아직 머근 것 다 토고 꺾난으로 새야셔 샌 후 인스를 출히되 <柳時定諺簡13 어제 더그시니> 그 이튼날 쏘 당호여 인스를 모르게 되매 약 어드라 김타[태]후 호여 진스의게 더거 보내라 호옵고 <柳時定諺簡49 거월 념스일>

【인스】⁴ ㉔ 인사(人事). 남녀 사이의 성관계. (중국어 간접 차용어). ㉕ 人事 || 습인은 본디 총명호 녀지라 나히 쏘 보옥보다 두 살이 더호고 근력의 쏘 점점 인스를 아는지라 (襲人本是個聰明女子, 年紀又比寶玉大兩歲, 近來也漸省人事.) <紅樓 6:3>

근대 중국어 ‘人事’가 우리말로 번역된 또 다른 예는 연세대 소장 『서유기』 번역본(18c 초)이다. 여기에서는 ‘人事’를 ‘인스홀 것’으로 번역하여 ‘인사조로 주는 선물이나 금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⁴⁴⁾

【인스-호-】 ㉔ 만날 때 어떤 물건으로 예를 갖추다. 뇌물(賂物) 주다. 선물하다. ㉕ 人事 || 임의 공부룰 일위 이 경문을 둥국의 전호고 몸이 성블호게 호여시니 그져는 이 경문을 못 가져갈 거시니 무슴 인스홀 거시 잇느냐 (聖僧東土到此, 有些甚麼人事送我們? 快拿出來, 好傳經典你去.) <西遊 延世 13:75> 벌먹는 중이 손툽인들 인스홀 거술 어디 가 어드리잇가 <西遊 延世 13:75> ⇒ 人事호-

44) 김장환·박재연·김영(2009), 『서유기』, 학고방, 456쪽.

『朴通事諺解』(1677)에서는 “人事, 土產, 俗 ‘도산’, 舊本作 ‘撒花’ ”라고 풀고 있어, ‘土產’과 ‘撒花’를 들고 있다. 이때 ‘土產’은 ‘멀리 타지에 나갔다가 선물로 사 가지고 오는 지방 특산물’ 정도로 이해되는 반면, ‘撒花’는 중국 문헌인 『南村輟耕錄』·『黑韃事略』 또는 『草木子』에서 보듯 ‘도색질하거나 강탈한 금품’의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⁴⁵⁾

그런데 『翻譯朴通事』(1517)에 처음 나타났던 ‘도산’이 중국소설 『包公演義』 번역본(19c초)에 나타난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⁴⁶⁾

【도산】 罇 화대(花貨). 해웃값. 歇錢 || 니빈이 쇼왈 네 집의 머머러 두어
쥬효를 장만하고 남은 거슨 도산을 삼게 흐라 (李賓笑道: “留在女家
做酒, 餘者當歇錢.”) <包公 繡履埋泥 5:73>

이때의 ‘도산’은 단순히 ‘선물’이란 뜻이 아니라 의미가 ‘기생, 창기 등과 관계를 가지고 그 대가로 주는 돈’인 ‘화대(花代)’ 즉 ‘해웃값’으로 쓰여, ‘도산’의 의미가 다양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중국어 원문의 ‘歇錢’은 『金瓶梅』 제68회와 제99회에서 그러한 용례가 확인된다.⁴⁷⁾

참고로 낙선재본 『포공연의』(19c초)의 원전은 명나라 만력 연간에 나왔으며 번역은 적어도 17세기에는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현재 장서각에 남아 있는 번역본은 그 전사본으로 필사기는 없지만 그 어휘나 문체로 보았을 때 대개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도 초반에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어,⁴⁸⁾ ‘도산’이

45) 【撒花 살화】 sāhuā <名> ① [삐화] 화문 곱 * 綉布等織物上的碎花圖案。|| “門上掛着葱綠~軟簾, 劉姥姥掀簾進去.” 문 우히 축목식 화문 고은 바울을 거러거늘 류로되 바울을 들고 드러가 (紅樓 41:65) ② 討索或搶劫得來的錢財。|| “銀錠字號: 大兵平宋, 回至揚州. 丞相伯顏號令搜檢將士行李, 所得~銀子, 鎖鑄作錠.” (輟耕錄 30) “才會譯語, 便做通事, 便隨韃人行打, 恁作威福, 討得~, 討得物事.” (黑韃事略) ⇨ 撒花錢, 人事, 歇錢

【撒花錢 살화전】 sāhuāqián <名> 平白索取錢財. 亦指無故索得的錢。|| “其間人討錢, ……無事白要, 曰~.” (草木子 4) 『中朝大辭典』卷5, 974쪽 참조.

46) 박재연(1999), 『포공연의의包公演義』, 중한번역문헌연구소, 134쪽.

47) “拿着他娘子兒一副金鐲子, 放在李桂姐家, 算了一個月歇錢.” (金瓶梅 68) “你在我店中點兩個粉頭, 幾遭歇錢不與, 又塌下我兩個月房錢.” (金瓶梅 99)

란 어휘의 하한선을 가늠케 한다.

‘도의’는 『訓蒙字會』(1527)에 처음 나오는 어휘로 ‘거간(居間)’ 또는 ‘장사치’란 뜻이다. 현대국어에서 ‘물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파는 장사치’를 뜻하는 ‘도부(到付)꾼’과 관련이 있을 듯한데 확실치 않다. 이 어휘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18세기 필사 문헌에서이다.

【도의】 𪛗 ((사람)) 거간(居間), 장사치. 𪛗 도의 판, 買賤賣貴曰“販”. <訓下雜語 9b /21b> 도의 판 (販) <音韻 34b> 𪛗行 || 문왈 그더 물 도의 룰 아니면 일덩 마의 출신이로다 노인이 굴오더 나는 물 도의도 아니오 마의도 아니라 (問老者道: “你是鞭杖行, 還是獸醫出身?” 老者道: “我也不是鞭杖行, 也不是獸醫.”) <隋史遺文 2:26> ⇒ 도위

【도위】 𪛗 ((사람)) 거간(居間), 장사치. 𪛗 駟儉 || 정시 다 회뢰로 되여 탐욕하는 뉴들이 도당에 그득하여 은을 주고 벼슬을 사미 물 파는 도위 갖고 부역이 번다하여 백성이 견디디 못하니 종사의 위티힘이 많은 실을 드리움 갖든디라 (政以賂成, 昏墨盈朝, 輦金市官有同駟儉, 賦役煩多, 誅求無藝, 民不堪命. 嗷嗷塗炭, 宗社之危若綴旒.) <朝記 西宮廢論 8:73> ⇒ 도의

위에서 보듯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 『音韻半切彙編』에서 ‘販’의 대역어로 ‘도의’가 유일본으로 현재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애스틴(Aston 阿須頓) 구장 번역고소설 필사본 『隋史遺文』(18c중엽)에서는⁴⁹⁾ ‘도의’가 ‘채찍과 매를 든 장사치’란 뜻의 ‘鞭杖行’의 대역어로 쓰여, ‘말장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역사서 필사 문헌인 『朝野記聞』에서는 ‘駟儉’의 대역어로 ‘도위’가 쓰였다. 이 어휘가 적어도 18세기까지도 꾸준히 쓰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訓蒙字會』(1527)에 ‘[馬+產]’을 ‘내맛물 산, 俗稱光馬’로 석의하고 있다. 그

48) 박재연(1999), 「조선시대 공안협소설 번역본의 연구-『포공연의』와 구왈자본 『염라왕전』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25, 한국중어중문학회.

49) 박재연·김영·손지봉(2004), 『슈스유문隋史遺文』, 이회, 41쪽.

런데 기존의 고어사전에는 한결같이 ‘말의 한 품종’, ‘말의 하나’ 정도로 풀이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馬+産]’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았거나, 근대 중국어 ‘光馬’의 뜻을 확인했거나, ‘[馬+産]’자가 들어간 어휘 ‘[馬+産]馬[찬마]’가 『同文類解』(1748)나 『譯語類解補』(1775) 등의 類解書에 ‘기르마 업슨 몰’(48a/37a)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 이러한 오류는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내맛-말】 𩇛 ((짐승) 안장(鞍裝)을 엮지 않은 말. 俗稱“光馬”. ([馬+産]) <訓下 雜語 4b /9a> ⇒ 내맛말

【내몬-말】 𩇛 ((짐승) 안장(鞍裝)을 엮지 않은 말. 騶 || 모든 군식 요란함을 듣고 급히 내려 갑을 넘고 휘를 신다가 혼 짝을 못 미쳐 신고 장 뒤흔 나가 말을 길마를 못 미쳐 지어 내몬말을 타고 열여덟 가장을 다리고 진을 깨쳐 북으로 다르니 (聞衆軍擾亂, 不知所出, 擴廓帖木兒急起披甲納靴, 未竟跳一足, 踰帳後, 馬不及鞍, 乘騶與十八旗冲陣北道.) <英烈 7:86> ⇒ 내맛말

번역고소설 『대명영렬던』(18c중엽)에 나오는 ‘내몬말’의⁵⁰⁾ 대역자 ‘騶’은 ‘[馬+産]’과 같은 뜻이다. 『華東正音通俗韻考』(1747)에 ‘騶[잔]’을 ‘不鞍騎’(1:41a)로, 『漢清文鑑』(1770)에 ‘騶馬[찬마]’를 ‘기르마 업슨 몰’(14:31a)로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18세기 후반의 문헌에는 ‘안장을 엮지 않은 말’을 ‘내맛말’보다는 ‘기르마 업슨 몰’로 일관되게 나타나 ‘내맛말’은 더 이상 점점 쓰이지 않게 된 듯하다. 그렇다면 『대명영렬던』(18c중엽)에 나오는 ‘내몬말’은 상당히 의고적인 어휘이다. 왜냐하면 ‘내몬말’이 출현하는 낙선재본 번역고소설 『대명영렬던』의 원전 『皇明英烈傳』은 명나라 만력 연간에 나왔고, 현재 전하는 한글본은 18세기 전사본이지만 번역은 한 세기 전인 17세기 말에는 이루어졌으리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50) 박재연(1996), 『대명영렬던大明英烈傳』,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32쪽.

2.4. 의미변화

『고어대사전』은 15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폭넓은 자료들을 대상으로 어휘를 선별하므로 5세기 이상의 시간 속에서 개별 어휘들이 변해온 발자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대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단어들은 그 연원을 따져 보면 지금과는 다른 쓰임새를 살펴볼 수 있기도 하다. 한 예로, ‘싱니’는 중국어 ‘生意’의 대역어로서 “장사”의 뜻을 가진 단어로, 한자어 ‘생리(生理)’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한 기존의 사전에는 ‘생리’를 “① 생물체의 생물학적 기능과 작용, 또는 그 원리 ② 생활하는 습성이나 본능 ③ 월경”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익을 냄”의 뜻으로는 한자어 ‘生利’가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생리’에 “살아갈 방도, 살림살이, 장사”의 의미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사전 기술이다. 한자어 ‘生利’는 『杜詩諺解』에서는 “살아갈 방도”로 쓰였으며, 원래는 명대 희곡이었으나 조선시대 역학서로 쓰인 『伍倫全備諺解』(1721)에서는 “장사”의 의미로 쓰였다. 근대 국어 문헌인 『손방언의』(18c중엽), 『후슈호던』(18c중엽), 『대명영렬던』(18c중엽) 등의 번역 고소설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生利’는 현대 중국어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근대 중국어에서 광범위하게 ‘生計, 生活, 生意’의 대역어로 쓰이며 각각 “살아갈 방도, 살림살이, 장사”를 의미한다. ‘싱니’는 『을병연행록』, 『조천록』 등과 같은 연행록뿐만 아니라 국문소설 『보은괴우록』, 계녀서 『곤범』이나 『농가월령가』 같은 가사에도 널리 나타나며 19세기 말에는 ‘싱리’로 표기된 예도 보인다. 이러한 개별 단어의 쓰임새를 『고어대사전』의 폭넓은 용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⁵¹⁾

단어의 쓰임이 달라진 또 다른 예로 ‘가륙하다’와 ‘거룩하다’를 들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가륙하다’는 “마음씨가 하는 일이 장하고 훌륭하다”의 뜻으로, ‘거룩하다’는 “성스럽고 위대하다” 정도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51) 이에 대하여는 필자의 『영남대 소장 한글 필자본 『서유기』의 어휘 연구』(『2011 국어사학회 여름학술대회 발표집』, 26-57쪽)가 참고가 된다.

필사 문헌에 나타나는 ‘거룩하다’는 현재 쓰임보다 훨씬 의미의 폭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거룩하다’의 이표기는 ‘가룩-, 가룩ㅎ-, 가룩ㅎ-, 가룩허-, 가룩ㅎ-, 거룩ㅎ-, 거룩ㅎ-, 거룩-, 거룩ㅎ-, 거룩-’가 있다. 이들 가운데 ‘가룩ㅎ-’가 현대어의 “가룩하다”처럼 쓰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용례들은 “대단하다, 굉장하다, 장관이다, 크다”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일부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룩-ㅎ-】 ㉞ ① (권세가) 대단하다. ㉞ 결단코 가만흔 종적을 니지 아니하니 니 뜻은 치잉 얼굴을 비러 여츠여츠 ㅎ면 운네 아모리 제 마음의 원망흔들 어디 가 폭빅ㅎ며 윤광턴이 제 권세 가룩흔들 강상의 죄녀를 엇지ㅎ리오 <엄효 18:64> ② (담락이) 크다. ㉞ 이 녀지 과연 담낙이 가룩ㅎ고 미홍이 분디 신통커니와 술업이 이러툃ㅎ니 능운이 능히 제어치 못ㅎ리라 <화당 9:27> ⇒ 가룩-, 가룩ㅎ-, 가룩ㅎ-, 가룩허-, 가룩ㅎ-, 거룩ㅎ-, 거룩ㅎ-, 거룩-, 거룩ㅎ-, 거룩-

【가룩-ㅎ-】 ㉞ (마음씨나 하는 일이) 장하고 훌륭하다. 가룩하다. ㉞ 아디 못게라 굳가는 그리 가룩ㅎ고 당부는 아딜노 결혼ㅎ미 엇디 그리 불감ㅎ노 <완월 107:24> 두 쌀을 두밧 엇지 저긋치 다 가룩ㅎ고 스희 ㄹ기히 출중ㅎ여 ㄷ즈의 슬허ㅎ를 보건디 또 그 정경이 엇다 못ㅎ리라 <완월 118:56> 그눔을 향ㅎ여 방이공이을 그눔의개 다히고 방기를 썬니 그 방하공이 불러 그눔 꼭뒤에 마자 죽다 ㅎ니 그런 가룩ㅎ 슷ㅎ 방기 업다 ㅎ읍데 <西年工夫 106> ⇒ 가룩-, 가룩ㅎ-, 가룩ㅎ-, 가룩허-, 가룩ㅎ-, 거룩ㅎ-, 거룩ㅎ-, 거룩-, 거룩ㅎ-, 거룩-

【가룩-ㅎ-】 ㉞ (관혼상제 등이) 굉장하다. 어마어마하다. ㉞ 주희 집의 니르러 피마집장ㅎ고 긴긴히 관을 붓들고 몸을 니르려 일로의 거이 ㅎ야 보내여 성의 내니 관가ㅎ던 한미 비록 죽으나 풍광이 가룩ㅎ디라 (朱亥家披麻執杖，緊緊扶柩起身，一路舉哀，送出城去。這回管家婆儘死得風光。) <孫龐 3:26> ⇒ 가룩-, 가룩ㅎ-, 가룩ㅎ-, 가룩허-, 가룩ㅎ-, 거룩ㅎ-, 거룩ㅎ-, 거룩-, 거룩ㅎ-, 거룩-

【거룩-】 ㉞ 대단하다. ㉞ 廣大 ㉞ 이눔이 신통이 거룩다 ㅎ더니 진실노 ㅎ언이 아니로다 (幾年家聞人說孫悟空神通廣大，今日見他，果然話不虛傳。) <西遊 영남대 10-36:27> ⇒ 가룩-, 가룩ㅎ-, 가룩ㅎ-, 가룩허-, 가룩ㅎ-, 거룩ㅎ-, 거룩ㅎ-, 거룩-, 거룩ㅎ-, 거룩-

【거룩-ㅎ-】 ㉞ ①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가) 거룩하거나 늠름하다. ㉞ 거룩하다 (穆穆) <同上 容貌 18a> ▼ 棣棣 || 시에 곱오디 위의 거룩하야 가히 썰 거시 업다 하니 (詩曰：“威儀棣棣，不可選也。”) <古列女 4:7> ▼ 堂堂 || 진야선이 신장이 팔척이오 용피 거룩흔지라 희대상으로서 느와 태조를 보고 크게 소리하여 왈 내 히마다 이의 이서 지조를 니기니 텃하 영웅들이 다 와 지조를 결우대 내 만히 이기여시니 그대곳 이기면 은 일천 냥을 주리라 (陳也先身高八尺，狀貌堂堂，在戲臺上出六言道：“我年年在此演武，天下英雄敢來比勢，贏得我的輸銀一千兩。”) <英烈 1:89> 니도의 과연 위국공이 님강부등의 니르니 위의 거룩하야 정귀 천니의 버덜터라 <남계 2:75> 대원슈의 승전하야 도라오는 위풍이 늠름흔대 또 대승상 위의를 더으니 그 거룩하미 네 업슨 일이라 <낙성 2:80> 이찌 낙선이 하쳐의서 주렴 스이로조츠 원슈의 거룩흔 위의와 아름다운 용모를 바라보고 <명형 44:2> 너 큰 뜰희 서리들이 둘러셔고 그치를 곳고 시각패와 파루복을 드 랫는디 위풍이 늠 ; ㅎ고 위의 거룩하더라 <독천 2:5> ② (위세와 명망이) 대단하다. ㉞ 위의 추종이 벼슬노조츠 십니의 니어시니 거룩흔 위망이 지나는 바의 더욱 빛는지라 <현몽 10:26> ③ (위세가) 대단하다. ㉞ 大振 || 오직 초장군은 공렬이 스희에 진동하고 그결이 텃하의 답혀시니 병이 강하고 장췌 모질어 위세 거룩하니 (惟楚將軍，功烈震當時，氣節蓋天下，又兼兵強將猛，威勢大振。) <西漢 3:3> ④ (형세가) 대단하다. ㉞ 熱鬧 || 엇던 관원이 형세 저리 거룩하노 (甚麼官員過往，這等熱鬧?) <後水滸 9:15> ▼ 衆 || 한왕의 세 거룩하고 이제 번패 티기를 심히 급히 하니 군스를 보니여 돕기를 바라노라 ㅎ엇거늘 (漢兵勢衆，見今樊噲攻打甚急，早望遣兵協助。) <西漢 7:37> ⑤ (사람이) 홀륭하다. ㉞ 難爲 || 거룩하도다 보거거는 엇지 생각하여 내엇는노 (難爲寶哥哥怎麼想來) <續紅 22:10> 제인이 일시의 관광하니 신부의 거룩하고 신거하미 단아하고 요조하미 비길 디 업는지라 <소현 15:37> ⑥ (군세가) 대단하다. ㉞ 大 || 천 ; 이 성의 드러가니 날이 불셔 저물고 후초 인미 성 아러 닐으니 진퇴 텃턴하고 군세 거룩하더라 (那時楚兵緩緩進城，將近日落，後哨人馬已到城下，塵土衝天，軍勢甚大。) <西漢 8:8> ⑦ (병세가) 위독하다. ㉞ 重大 || 한신의 병세 거룩하고 겸하여 ㅍ이 만흐니 경 등이 무삼 낭칙이 잇는노 (韓信病勢重大，又兼詭計甚多，卿等有何良策?) <西漢 8:55> ⑧ (물결이) 세차다. ㉞ 洶湧 || 대선이 길홀 일경 그릇 ㄱㄹ꺠는

가 시브다 물결이 이리 거룩하고 쥬쥬이 업스니 엇지 건너리오
 (敢莫大仙錯指了? 此水這般寬闊, 這般洶湧, 又不見舟楫, 如何可渡?) <西遊 延世 13:68> ⑨ (소리가) 요란하다. 響亮 || 벼야흐로 언덕의 오르려 흐더니 홀연 물 속의 뛰노는 소리 거룩하야 큰 혼 낫 니에 물결을 쏘와 희롱흐거늘 (正待上山, 忽聽得波心里跳躍的水聲響亮, 齊回頭看時, 只見海中一個大魚翻波逐浪游戲而來) <隋煬 延世 2:12> ⑩ (신통이) 대단하다. 廣大 || 이년 던의 우마왕의 신통이 거룩흐믈 스모흐야 정으로 청흐야 지아버를 삼으니 (二年前, 訪着牛魔王神通廣大, 情願倒陪家私, 招贅爲夫) <西遊 延世 9:2> ⑪ (불, 성지, 행차, 누각, 산 따위) 장관(壯觀)이다. 굉장하다. 볼 만하다. 온 성둥의 불이 니러나 낫갓티 불그니 이 불은 박망쇼둔흐던 불도곤 더 거룩흐더라 (滿縣火起, 上下通紅, 當夜之火, 又勝博望燒屯之火.) <三國 奎章 9:128> ▼好 || 차설 당진왕이 중당으로 더브르 닻르 성하의 니르라 보니 과연 거룩흐 성디라 (話說, 秦王同衆管徑來到城下觀看, 果然好一座城池.) <唐秦 1:58> 어제 나조히 나의 녀셔디랑의 집의 한 거룩흐 헝치 드러시니 본디 경스 지상이라 <윤하당 74:21> 오륙십 간 층누각을 몰가호로 느리짓고 단청이 휘황흐여 물 속의 바회이고 너른 모시 도라가며 육난간을 들너시니 얹희 노코 바라보면 호탕흐고 거룩흐다 <戊子西行錄 10:112> 셋넉희 늑흔 피히 이셔 7장 거룩흐니 이거시 화부주의 피히라 <朝天錄 40> ⇒ 가록-, 가록흐-, 가록허-, 가록허-, 가록흐-, 거룩-, 거룩흐-,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㉞ (이름이나 재주가) 대단하다. 大 더적 후제에 장원흐고 이번의 또 지어 아직 등이 나디 아녀시나 일로 인하여 지명이 거룩다[多也] 흐더이다 (舊年年底, 李學院老爺歲考, 才是第一次, 案尙未發, 不知考得如何. 今年是二十歲了, 說才名是有的.) <玉嬌 1:62> ⇒ 가록-, 가록흐-, 가록허-, 가록허-, 가록흐-, 거룩-, 거룩흐-, 거룩-, 거룩-, 거룩-

【거룩-후-】 ㉞ ① (얼굴나 위엄이) 거룩하다. 대단하다. 堂堂 || 것터 흐사름이 이시되 위엄이며 얼굴이 거룩흐니 성은 삭이오 일흠은 취라 빵도치 쓰기를 잘흐더니 (傍邊走過一人, 威風凜凜, 相貌堂堂, 姓索名超, 綽號急先鋒, 慣使兩把金蘸斧.) <忠義水滸 서올대 22:18b> 낭사신이 처음으로 던조의 드러와 거룩흐 위엄을 보며 성던즈의 관인더량을 보미 더경신기흐고 <윤하당 89:35> ② (의기가) 대단하다. 深重 || 관승이 보니 거기 사름들이 의기

다 거룩히더라 선찬이 학스문을 도라보며 날오디 우리 임의 잡혀와시니 홀 일이 업스니 엇더호뇨 (關勝看了一般頭領義氣深重, 回顧與宣贊、郝思文道: “我們被擒在此, 所事若何?”) <忠義水滸 서울대 22:34b> ③ (이름이나 재주가) 대단하다. 大 || 그 사람이 날오디 식대관이 상시에 거룩흔 일흠을 니르며 서로 보디 못호되 호호더니 쇼인이 되셔 가리라 (莊客道: “大官人是常說大名, 只怨帳不能相會. 既是宋押司時, 小人引去.”) <忠義水滸 서울대 8:23a> 鴻 || 한원의 거룩흔 직죄 이셔 문명의 다스림을 도올 거시오 (做有翰苑鴻儒, 丕顯文名之治.) <平山 1:4> ④ (마음이) 가락하다. 홀롱하다. 向 등 사람이야 막음이 거룩흔 줄을 뉘 알리오 저마다 업슈이 너겨 일크리리 업더라 <型世 5:4> ⑤ (추종하는 사람이) 굉장하다. 어마어마하다. 먼니셔 텃글이 니러나고 풍악이 점점 갓갑거늘 세지 먼니 바라보니 위의 추종이 거룩흔 가운데 냥기 쇼년이 천니 추풍마를 치쳐 나아오니 <엄효 11:49> ※ 현대국어에 와서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의미로 변화하였음. ⇒ 가룩-, 가룩하-, 가룩하-, 가룩하-, 가룩하-, 거룩하-, 거룩하-, 거룩-, 거룩하-, 거룩-

이러한 사전 기술 내용은 서로 형태·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개별단어가 어휘사의 장대한 시간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태와 의미가 축소되거나 분화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맺음말

모든 언어 연구의 기본은 어휘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통시적으로 그 변화 양상이 무쌍한 한국어의 경우에는 시대를 아우르는 연구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기존의 고어사전들은 해당 사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적인 불충분함과 시간적인 단절로 인해 사전에 수록된 개개 어휘들이 변화해 온 모습을 온전히 관찰하기가 어려웠다. 한글 필사 고문헌의 활용을 통한 사전 편찬은 그 어휘를 양적·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많은 필사본 자료들에서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희귀어나 난해어, 사어와 잔존어들을 살펴볼 수 있고, 개별 단어의 의미 변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희귀어로 짚을/짚오리(손실분), 어리쇠/어르쇠(성냥), 문(번, 차례), 운(무리, 떼), 미물흐-/미물흐-/미물흐-(못생기다, 오종종하다), 배뺏-/배싸-/배뺏-(휩방놓다), 깡가락하-(말하다), 돈길가-(값나가다) 등을 살펴보았다.

난해어로는 ‘어늬’가 기존의 ‘방법’ 외에도 ‘정신/낫짝’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어머리’가 ‘현격하게’의 뜻 외에도 ‘하찮게’의 뜻이 있음을 밝혔다.

한자어로는 ‘티즈’와 ‘금장’의 한자가 ‘稚子’와 ‘襟丈’이며, 각각 ‘불모’와 ‘동서’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도 16세기 이전까지 보였던 ‘도산(선물 /해웃값)’, ‘도의(거간꾼, 장사치)’, ‘내맛말(안장 없는 말)’ 등이 18세기 필사문헌에서도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의미변화의 예로서 ‘거룩하다’를 들었는데, 이는 현재 쓰이고 있는 ‘성스럽고 위대하다’의 의미보다 훨씬 다양하게 쓰였음을 볼 수 있었다. 즉 ‘대단하다, 굉장하다, 장관이다, 크다’의 의미로도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근대국어, 한글필사 고문헌, 희귀어, 난해어, 사어, 잔존어, 의미 변화

〈참고문헌〉

- 남광우(1997), 『고어사전』, 교학사.
- 문세영(1942), 『조선어사전』, 영창서관.
- 박성훈(2009),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 박재연(2002), 『中朝大辭典』(9책),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선문대학교 출판부.
 _____(2005), 『홍루몽고어사전』, 이회.
 _____(2010), 『朝鮮後期筆寫本漢語會話書辭典』, 학고방.
 _____주편(2010), 『필사본고어대사전』(7책),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학고방.
- 유창돈(1964/1994), 『이조어 사전』, 연세대 출판부.
- 조항범(1998), 『註解 순천김씨 묘 출토 간찰』, 태학사.
-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4』, 어문각.
- 홍순석 외(2008), 『京畿東部地域의 古文獻』,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홍윤표 외(1995), 『17세기 국어사전』, 태학사.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
- 김 영(2007), 『조선후기 명대소설 번역 필사본 연구-새로 발굴된 서유기·高后傳·슈양의스·슈스유문·남송연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재연(1993), 『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 번역본의 연구-낙선제본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1), 「중국 번역소설과 역학서에 나타난 어휘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연구』 13, 한국어문학연구회, 138-174쪽.
- _____ (2008), 「진주 유씨가 묘 출토 인간의 어휘론적 고찰」, 『동방학지』 14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31-270쪽.
- _____ (2010), 「『필사본 고어대사전』 편찬에 대하여」, 『한국사전학』 16, 한국사전학회, 137-187쪽.

- _____ (2011), 「영남대 소장 한글 필사본 『서유기』의 어휘 연구」, 『2011년 국어사학회 여름학술대회 발표집』, 국어사학회.
- _____ (2012), 「조선 후기 필사본 漢語會話書 『騎着匹』에 보이는 희귀어와 차용어에 대하여」, 『역학과 역학서』 3, 역학서학회.
- 박진호 (2009), 「『십현담요해』 언해본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성철 대종사 소장 ‘십현담요해’ 언해본의 의미』,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 배영환 (2011),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 사전들을 통해 본 어휘의 특징」, 『조선시대 한글편지의 학제간 연구와 사전편찬』 발표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 백두현 (2006), 「국어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하여」, 『국어학』 47, 국어학회, 3-38쪽.
- 신중진 (2004), 「개화기 한글자료 말뭉치의 구축 방안」, 『관악어문연구』 2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61-283쪽.
- 이재홍 (200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번역 필사본 중국역사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현희 (2009), 「‘조초’의 文法史」, 『진단학보』 107, 진단학회, 129-179쪽.
- _____ (2010), 「‘체’와 ‘제’의 통시적 문법」, 『규장각』 3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73-134쪽.
- _____ (2010), 「근대 한국어의 잉여적 과생접미사 덧붙임 현상」, 『한국문화』 5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22쪽.
- 홍윤표 (1999), 「고전소설 사전 편찬의 의의」, 『정신문화연구』 77, 한국학중앙연구원, 297-306쪽.
- _____ (2001), 「국어사 자료 코퍼스의 구축 현황과 과제」, 『한국어학』 14, 한국어학회, 1-32쪽.
- _____ (2009), 「근대국어의 국어사적 성격」, 『국어사연구』 15, 국어사학회, 153-172쪽.
- _____ (2009), 「한글 고문헌 및 한글 고문서의 주석 방법에 대하여」, 『영남학』 1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73-306쪽.

- _____ (2010), 「신소설 어휘사전 편집과 항목 구성 방안」, 『신소설 어휘사전 편찬Ⅱ』 발표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 홍종선(2008), 「국어 사전 편찬의 역사(1)」,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학회, 117-143쪽.

[Abstract]

A Study on Words in Pre-Modern Korean Manuscripts

Park, Jae-yeon

All the studies of language can be said to start from vocabulary. In particular, the Korean language, which is well-known for its diachronic changes, deserves research on its chronological transformations. The existing dictionaries of archaic Korean words had failed to show how each word changed over the course of time, let alone their limited entries. Compilation of the dictionary that comprises words from Pre-Modern manuscripts expand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cope of entries of a dictionary. This dictionary made it possible to view rare words, abstruse words, extinct words, residual words and borrowed words.

Rare words include *질을/질오리*(lost amount), *어리쇠/어르쇠*(match), *문*(door, turn), *운*(group, swarm), *미물 흐-/미물 흐-/미물 흐-*(ugly looking, dense), *배뻘-/배씨-/배뻘-*(interrupt), *깡가락하-*(speak), and *돈길가-*(expensive). Abstruse words include ‘어ㅎ,’ which could denote either ‘existing method’ or ‘mind/face,’ and ‘어머리,’ which could mean ‘trivial’ as well as ‘conspicuously.’

‘稚子’ and ‘襟丈’ are shown to have been the Chinese equivalents of ‘티즈’ and ‘금장’ respectively, whose meanings are ‘hostage’ and ‘husband of wife’s sister.’ It was also revealed that such words as ‘도산’(present/a charge for a prostitute), ‘도익’(a broker, merchant) and ‘내맛말’(a horse without a saddle) that had been used up to 16th century were used in the 18th century manuscripts as well.

【Key words】 : Pre-Modern Korean, Pre-Modern Korean manuscripts,

rare words, abstruse words, extinct words, residual words,
transformation of meaning

박재연

선문대학교 인문외국어대학 중어중국학과 교수

(336-708) 충남 아산시 당정면 갈산리 선문대학교 인문외국어대학
중어중국학과

전자우편 : jypark@sunmoom.ac.kr

이 논문은 2012년 7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9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